





| SRI-기본-2018-13 |

# 지역 기반 청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수원 청년문화 생산자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reators of Youth Culture in Suwon

최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정수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2018년 10월 31일

**ISBN** 979-11-89160-33-3 (9333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18. 「지역 기반 청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요약

여타의 문화담론과 마찬가지로 청년문화 담론은 주로 서울(중앙)에서의 문화활동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 한국에서 청년문화, 하위문화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는데 그나마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한편 지역문화 담론은 당위성을 내포한 지역발전의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을 가시적 성과와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의 다양한 의미가 배제되고 있다.

청년문화는 새로운 문화적 시도와 실험, 대안적 가치와 태도로 대변되곤 했다. 즉, 역사적으로 청년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구성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이것이 지역문화를 진흥하고자 할 때, 그 중심 주체의 하나로 청년 문화 창조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연구는 수원 지역의 대안, 독립, 하위문화로서 청년문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에 내재하는 다양한 비주류 하위문화이자 저항과 대안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문화적 현상들을 다룸으로서 혼성적이고 입체적인 문화적 구성물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문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1960년대 서구사회의 문화적 혁명은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에 반하여 대항문화적 특성을 지닌 문화로 발전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문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현 시기의 청년문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 범주와 포함하는 영역은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포괄적이다.

이 연구의 주된 조사대상은 청년문화의 생산이나 매개/유통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적으로 2-30대에 속해있으면서 수원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청년, 즉 장르나 분야에 상관없이 문화기획자나 활동가 그리고 예술가로 호칭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 대상이다. 문화활동의 범주는 실험적이거나 탈장르적 활동으로 관성화되어가는 기성 예술계에 대한 대안적 활동, 독립이나 인디적인 성격의 활동,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운동과 연계한 문화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주로 30대로, 대다수가 출생이나 성장과정에서 수원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일과 관련되어 수원에 정착하는 경우 수원시나 경기도 혹은 산하 기관들에게서 지원을 받거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선정된 것이 주된 계기이다.

이들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의미의 예술 장르나 한 가지 영역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독립서점과 심리상담, 디자인 스튜디오와 독립서점, 음악 활동과 문화공간 운영, 문화공간 운영과 음반제작, 카페 운영과 사회적기업 경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 예술가들과 달리 공적인 지원이나 후원에서 벗어나 자립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어떤 이유로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든지 간에 이들의 활동에는 일종의 지역에 대한 사명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수원'에 대한 애정이기도 하고 서울에 대한 '지역'인으로서의 반발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실상 지역 간의 문화적 위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과 자원을 서울에 흡수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낙오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청년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으로 오히려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서울과 수원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얻은 경험을 수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수원의 청년문화 활동가들은 공적 지원과 자율자립성의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생산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화소비와 유통이 일어나 문화생태계의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당부분 여전히 공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문화활동가들의 자립의 문제는 문화활동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공공성과 상업성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일찌감치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에 익숙한 청년세대들은 영리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상업적인 공간 일지라도 상업성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혹은 일시적으로나마 예술적 전유를 통해 일종의 문화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지역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지역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 중심의 주류 문화를 배격하지 않으면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서울의 '힙'함이나 앞서나감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경험을 쌓고 트레이닝을 받지만 이에 대한 열등감을 갖지도 않는다. 자신 활동의 근거는 지역에 두지만 지역예술가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지역문화원으로서의 수원의 청년문화를 논하기는 선부른 감이 있다. 아직은 수원의 청년문화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젊은 인력들이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과 미학적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도시 활력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제어: 청년, 청년문화, 문화생산자, 하위문화, 지역문화원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b>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b> .....	<b>7</b>
제1절 청년 개념 .....	9
1. 발달이론적 관점에서의 청년 : 성인 이행기 .....	9
2. 세대담론 관점에서의 청년세대 .....	13
3. 법령 및 정책에서의 청년 .....	18
제2절 청년문화 담론 .....	22
1. 서구의 청년문화론 .....	22
2. 한국의 청년문화론 .....	24
제3절 타 지역 사례 .....	28
1. 부산 .....	28
2. 천안 .....	30
3. 시흥 .....	31
<b>제3장 수원 청년문화의 생산자</b> .....	<b>33</b>
제1절 수원 청년문화의 발생적 맥락 .....	35
1. 수원 청년과 청년문화의 역사 .....	35
2. 현재 수원 청년과 문화활동 .....	36
제2절 청년문화 생산자 조사 개요 .....	38
1. 청년문화 개념 및 범주 설정 .....	38
2. 조사 범주 및 대상 .....	39

제3절 수원 청년문화 생산자들의 특성과 인식 .....	43
1. 수원에 정착하기 .....	43
2.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의 줄타기 .....	44
3. 홀로 서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 .....	46
4.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 .....	50
5. 수원과 정서적으로 묶이기 .....	52
6. 수원의 문화만들기 .....	54
<b>제4장 결론 .....</b>	<b>59</b>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	61
제2절 정책적 제언 .....	64

---

## 표 차례

---

〈표 2-1〉 2008~2012년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청년세대 명칭들 .....	15
〈표 2-2〉 ‘청년세대’를 둘러싼 담론 경합 .....	16
〈표 2-3〉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하한-상한 연령 .....	18
〈표 2-4〉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비교 .....	20
〈표 2-5〉 서구 청년 하위문화 계보 .....	24
〈표 3-1〉 청년문화활동 분류 .....	39
〈표 3-2〉 인터뷰 참여자 .....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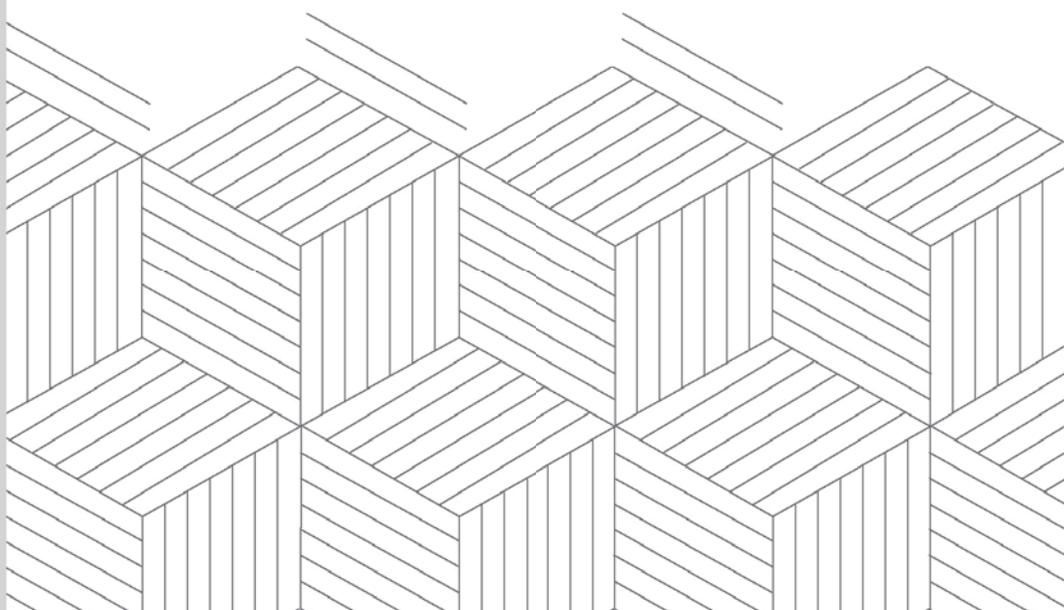
## 그림 차례

---

〈그림 2-1〉 청년 관련 주요 정책에서의 청년 연령 범위 .....	19
〈그림 2-2〉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범위 .....	2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청년문화’는 세대문화와 하위문화를 느슨하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청년문화(youth culture)는 주로 20대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된 경험을 가리키면서 그 안에 세대 단위마다 지나는 여러 특수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젊은이들 사이에 단일하고 동질적인 문화가 있음을 가정하고 세대문화로서 청년문화 담론에 대해 계급, 세대, 인종 등의 사회범주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하위문화 개념의 관점에서 청년하위문화를 구분지어 논의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하위문화 개념의 청년문화 담론에서 조차 지역은 거세되어 있다. 여타의 문화담론과 마찬가지로 청년문화 활동과 담론은 주로 서울(중앙)에서의 문화활동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sup>1)</sup> 한국에서 청년문화, 하위문화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길섭, 1999; 김민규, 2001; 김창남, 2004, 2008; 이기형, 2007; 이동연, 2001, 2004; 장현정, 2004).

한편 지역문화 연구는 문화정책의 맥락에서 지역의 문화정체성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문화 담론은 당위성을 내포한 지역발전의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을 가시적 성과와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의 다양한 의미가 배제되고 있다.

청년문화는 새로운 문화적 시도와 실험, 대안적 가치와 태도로 대변되곤 했다. 즉, 역사적으로 청년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구성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이것이 지역 문화를 진흥하고자 할 때, 그 중심 주체의 하나로 청년 문화 창조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창작의 동력인 지역 청년 문화활동이 서울(중앙)로 유출되고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청년문화에서도 문화의 중앙 종속 경향, 지역 간 문화적 위계, 지역문화 활동과 논의의 결핍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1) ‘홍대 앞’과 같은 지역과 연관된 연구가 있지만 ‘홍대 앞’이라는 지역은 서울 내에서 공간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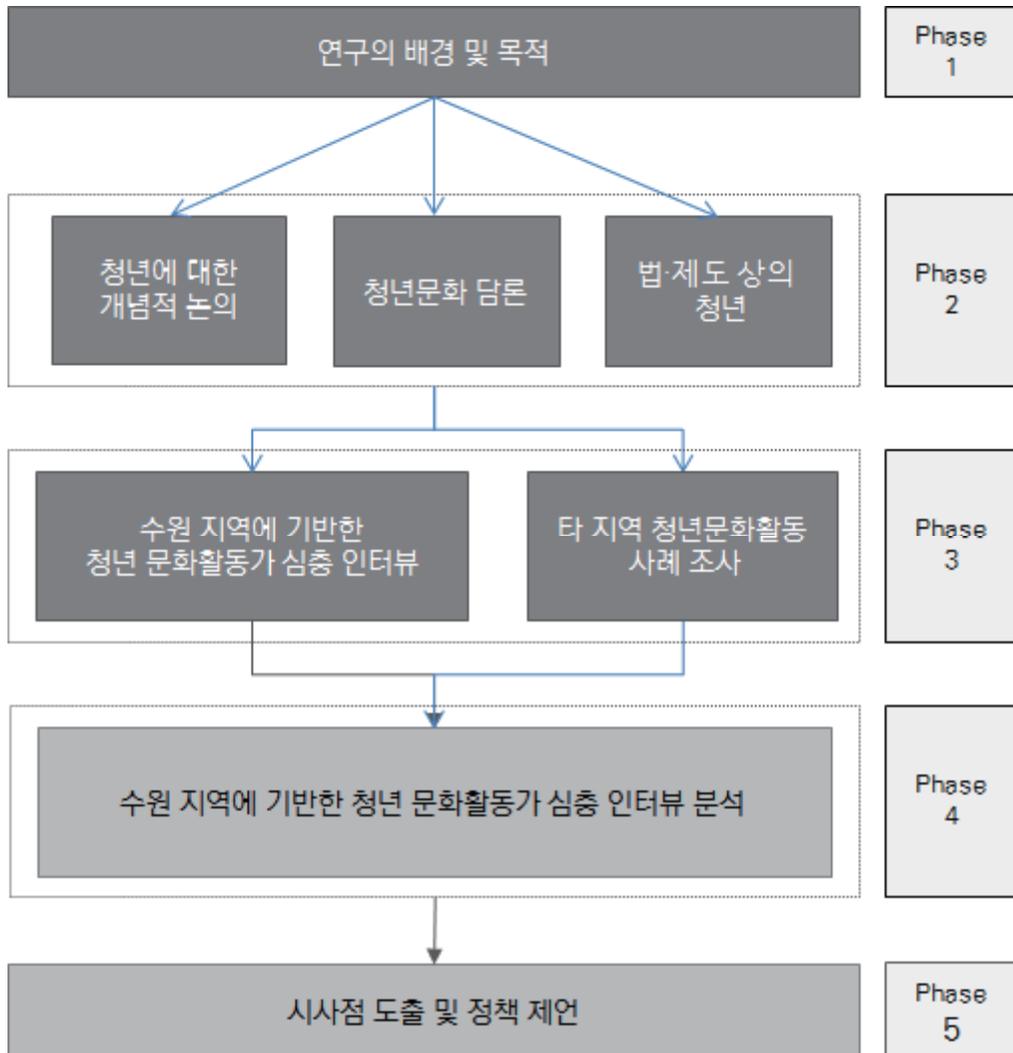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형성원리와 동학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도시의 문화적 성격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차이'로서 지역문화씬의 형성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생태계 구축 방안, 이로부터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수원 청년문화활동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수원의 대안, 독립, 하위문화, 비주류 문화로서 청년문화의 양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지역에 내재하는 다양한 비주류, 하위문화이자 저항과 비판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문화적 현상들을 다름으로서 혼성적이고 입체적인 문화적 구성물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지역문화씬(Local scene)의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역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차원, 즉 수원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수원 지역문화 진흥 방안으로 수원 지역 청년문화씬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하위문화이자 지역문화로서 수원 청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수원의 청년 문화기획자나 활동가, 예술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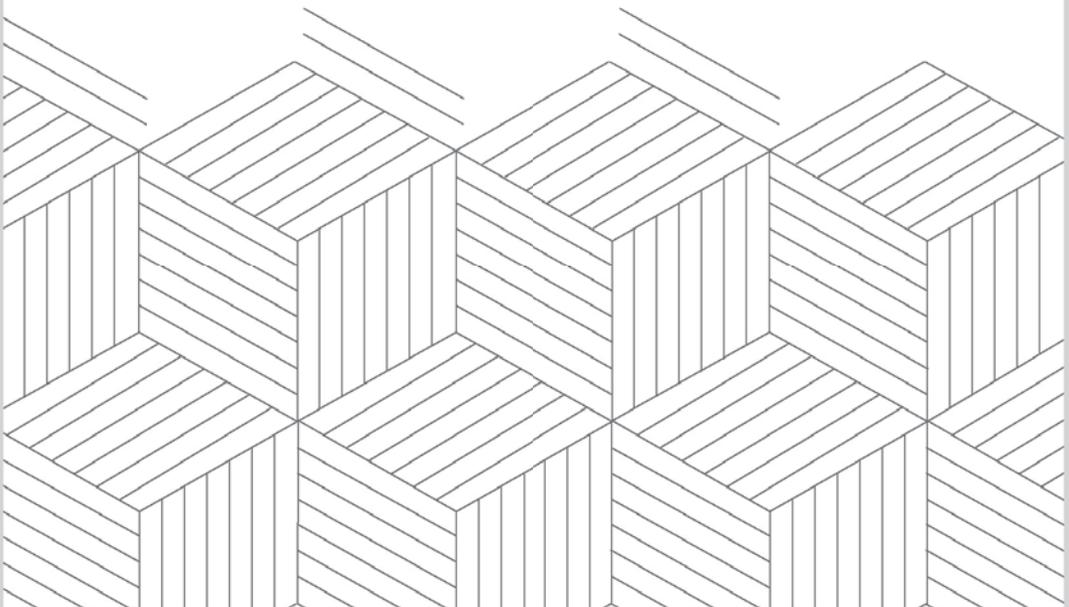
문헌연구를 통해 청년의 개념, 청년문화 담론 및 법·제도상에서의 청년범주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지역 청년문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타 지역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문화와 청년문화활동의 범위를 정의하고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설정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

제1절 청년 개념  
제2절 청년문화 담론  
제3절 타 지역 사례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청년 개념

#### 1. 발달이론적 관점에서의 청년 : 성인 이행기

##### 1) 생애과정의 표준화와 청년기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다. 즉 아동에서 성인인 되기 위해 준비하고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도기적 시기라 할 수 있다.(허혜경·김혜수, 2015: 8) 청년기의 시작점은 생물학적 2차 성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종결점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해 성인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때로 보고 있다.

청년기의 발달에는 생물학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 청년기에 수행해야 할 신체적·인지적·심리사회적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달심리학자 해비거스트(Robert Havighurst)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는 직업선택 및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돌봄, 성역할 학습, 관계 정립, 시민으로서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 가치관과 윤리체계 형성, 결혼 및 가정생활 준비 등이 있다.(허혜경·김혜수, 2015: 23) 이러한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개인적 속성이나 노력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상호의존적 체계를 고려한 맥락 속의 발달로 이해해야 한다.

에릭슨(Erik Erikson)은 에릭슨은 청년기가 자아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라 보고 생애주기 중 청년기에 관심을 가졌다. 에릭슨은 성격발달에 관심을 두고 8단계의 발달과정에서 각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에릭슨의 성격발달 개념 또한 개인의 성격은 성장과정에서 생물학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문화적·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변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제시되었다.

생물학적 발달단계와 연계된 심리적, 인지적 발달단계이론을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발전시키면서 생애주기(life cycle)론 또는 생애과정(life course)론이 등장한다.<sup>2)</sup> 발달이론에서 인간의 발달과정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개인을 설정하고 발달과업을

2) 에릭슨의 경우 사회심리적 발달의 연속적 8단계를 기술하면서 생애주기이론을 정립하였다. 에릭슨은 발달이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생물학적 발달단계 이후에도 사회심리적 발달이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업은 생애주기 혹은 생애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청년기를 특정하게 된다.

사회학적 맥락 속에서 발달단계를 설명하는 생애과정론 속에서 청년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기준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청년층이 졸업, 취업, 결혼, 분가, 출산을 경험하면서 성인기로 이행한다는 표준적 생애과정의 개별적 이행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연령층위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사회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근대에 들어서 아동기의 연령층위는 점점 더 길어지고, 사춘기라는 새로운 층위가 18세기에 여러 유럽사회에서 분화되었다. 그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생애주기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연령층으로 구분하고 각 연령층에는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행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 청년기에는 졸업, 취업, 결혼, 분가, 출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식의 표준적 생애과정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이동하면서 확립된 것으로 분석한다(남춘호·남궁명희, 2012).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되면서 국가 및 일터와 분리된 가족, 교육, 노동시장 등의 사회제도들이 생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의 노동일대기를 중심으로 생애과정을 표준화했다는 것이다. 생애과정의 표준화는 개인의 생애를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로 분화시키고, 이러한 생애과정인 성인 남성의 노동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제도화된 질서에 의해 포섭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은 서구의 포디스트적 복지국가 시기에 정점에 이르는데 이 시기는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노동자를 전제로 한 전형적 핵가족을 확립하고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하에서 포괄적인 사회보험체계가 정립된 시기이다. 그 결과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의 확대, 완전고용과 평생고용 하에서 상하이동 및 소득상승에 대한 희망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으로의 빠른 이행과 이른 나이의 결혼과 출산이 보편화되어 초기 성인기이행이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보편적으로,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생애과정 자체가 동질화된 것이다.

## 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와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1970년대 이후로 지구화와 국제경쟁의 격화, 신자유주의 기조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불안정화가 펼쳐지면서 표준적 생애과정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규범의 약화, 여성의 학력 상승 및 취업 증가로 인한 사회·정치·경제적 지위 향상, 고등교육의 확대 및 전문가 훈련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교육기간 연장,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 증가 등 집단적 결정이 감소하며 개인화되면서 생애 과정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고 불안정해졌다.

이전 시기에는 분화되었던 교육과 노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주독립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자신의 가족형성간 이행의 연관성이 약화되었다.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상당수의 커플들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아예 부모되기를 포기하기도 하며 여성들은 교육수준에서 남성을 능가하고 결혼보다 일을 선호하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혼인이나 비혼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성인기이행 행동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 현상 하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기존의 전형적 이행사건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한편, 경험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행한다 하더라도 지속기간이 짧아진다. 나아가 기존의 상태지위들에서 소수를 차지하던 지위들의 비중이 커져서 정상화되는 한편, 기존의 규범적인 상태지위들과는 다른 새로운 범주들이 부상한다. 또한 두 이행간 연관성이 약화되거나 순서가 역전되어 상태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탈표준화 과정이나 양상은 다양성으로의 수렴을 넘어 졸업-취업-결혼-출산-은퇴로 이어지던 생애과정 자체가 해체되는 것으로까지 인식한다.(남춘호·남궁명희, 2012)

이러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를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순미, 2014)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정상적 근로관계의 침식과 여성의 교육·노동에서의 성취 증대, 가족의 민주화로 인한 성별관계의 변화, 복지국가의 약화 등이 노동과 가족생활의 비연속성을 증대시키고 생애과정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여전히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생애과정은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전통적 방식의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안선영 외, 2010)나 삼포세대와 같은 최근의 청년담론은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성인기 이행의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좌절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청년의 성인기 이행이 한편으로는 규범적이고 표준적 생애과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후기근대사회이 모습인 개인주의적이고 비표준적인 생애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은기수 외, 2011).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사회변동으로 인해 전통적 방식의 성인기 이행이 어려워진 현실의 원인이거나 징후 혹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문제없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인 자립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청년기의 발달과업 또한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발달과 함께 취업, 결혼, 출가 등의 독립적 상태로 전이될 능력을 갖추는 행위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재 청년들은 이전보다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전보다 ‘연장된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신체발달이 빨라져 사춘기가 보다 이른 연령에서 시작되어 청년기의 시작점이 당겨지고, 이에 반해 교육 및 사회 준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청년기의 종결 연령은 점점 더 늦어져서 청년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허혜경·김혜수, 2015).

연장된 청년기의 주된 요인은 성인기 이행의 지연이다. 학교교육기간의 연장되면서 취업 시기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또한 심화되었고 청년들의 경제적 입지도 이전 세대에 비해 약화되는 등의 요인들이 성인기 이행 시기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Newman & Aptekar, 2007; Danziger & Rouse, 2007)

이와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은 ‘후기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전상진·정주훈, 2006) 과거에는 교육의 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출과 같은 경제적 자립, 결혼 등 사회적 자립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 성인(young adult)인 20대 청년을 구분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독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진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자립 연령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구직 및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20대 대학생들은 여전히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20대들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는 사실상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며 사회적 진출이 유예당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아넷(Jeffrey Jesen Arnett) 약 18세부터 25세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를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를 경험하는 ‘발현 성인기 혹은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개념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한편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심리적 성숙과 성인지위의 도달 간의 격차로 인해 안정적 정체성의 구축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체성 유예’인 것이다(Cote & Allaha, 1996).

미국의 150년대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맥도날드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결혼해서 자녀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직업의 차이가 생기고 임금격차가 커졌다.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이 점차 힘들어졌고 결혼은 늦어지고 동거가 증가했다. 그 결과 18세 정도에 부모로부터 독립해 교육을 받았더라도 아직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결혼이나 출산도 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칭하기 위해 발현 성인기라는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김은정, 2014).

발현 성인기는 산업화정보화의 현대사회에서 자기실현이나 탐색의 과정을 거쳐가며 정체성 정립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시기를 지칭한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성인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 시기는 성인기도 청소년기도 아닌 이질성이 높은 시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넷에 따르면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고 불안정한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개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시기이고 ‘깁’ 시기이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2. 세대담론 관점에서의 청년세대

### 1) 청년세대론

발달이론에서 청년은 아동기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도기적 준비기를 보내는 인구이다. 그러나 ‘청년’은 단지 인간의 발달단계로서만 지시할 수 없으며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다. 청년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위치에 놓여온 상징적 단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 개념은 근대와 함께 등장하였다. 청년이란 용어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young man’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청년은 이야기의 주체와 상황에 따라 진취적 기상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선구자로도, 사회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할 불량한 존재로도 인식되면서 근대 사회의 젊은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주제화하려는 담론의 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이기훈, 2014).

이후 1950년대까지는 청년 담론의 암흑기로서 청년은 전쟁과 이념 대결의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 사회로부터 일정한 세대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역동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청년은 대학생으로서 혹은 노동자로서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었다(최성민, 2012).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청년들은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동시에 청년은 거대한 기성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주체이며 민주화 시대의 주체이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문화, 즉 ‘청년문화’를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첫 세대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청년문화의 근간은 일제와 전쟁, 그리고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폭력적 정치 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자유주의’ 그리고 산업화와 상업화 시대에 반하는 ‘순수주의’였고, 1980년대에는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1980

년대 후반이 되면 '청년'은 동일한 연령대의 '대학생'만을 의미하는 표현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청년은 특정한 세대가 하나의 정치·문화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계층'의 개념을 함의하게 되었다(최성민, 2012).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청년 대학생들의 집회나 시위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정치적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청년은 '신세대'라는 지칭되었고 상업적인 필요에 의해 여러 가지 'OO세대'라는 표현으로 청년 세대를 대체하였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스스로 새로운 세력이 되거나 새로운 주체가 되기보다 '호명'된 신세대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소비문화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청년 세대는 거의 온전히 소비의 객체가 되었다. 이들은 기성세대나 주류권력을 극복하거나 전복하기 위해 나서기 보다는 다수의 일원으로 합류하기를 희망하는 편을 택한다.

이제 청년들은 소비의 객체의 자리에서조차 밀려나 버리는 형국이 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소비할 '돈'조차 충분히 벌지 못한다. 과거의 대학은 사회적으로 혜택 받은 이들이 가는 곳이었고 대학생은 지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은 학점을 판매하는 학원처럼 변해버렸고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비참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

이렇듯 '청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청년은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스스로를 과거 세대를 극복할 새로운 세력으로, 산업화 시대에는 정치·사회적 운동을 통해 저항의 주체이자 문화의 주체로, 1990년대에는 소비의 객체로, 이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아이콘으로 상징되어 왔다.

## 2) 청년세대담론을 둘러싼 논의

세대 담론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특징을 부여하고 어떤 위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활발하게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버려진 세대(jilted generation)'(White, 2013), 유럽에서의 '세대투쟁론'과 'P세대론'(전상진, 2010),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밀레우리스티(Milleuristi)' 등으로 청년세대가 특징지어지고 표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세대담론 생산의 특징은 언론들이 청년세대에 대한 특별한 세대명칭을 부여하면서 능동적으로 담론 생산에 참여해왔다는 점이다(방희경·유수미, 2015). 언론은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청년세대의 특질과 이들이 표출하는 정서와 트렌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세대를 매개로 하는 상업적인 담론의 확산에 기여해 왔다.

〈표 2-1〉 2008~2012년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청년세대 명칭들

세대명	매체 (보도일자)	내용
실크세대	조선일보 (2008.1.27.)	71년생 이하 젊은 리더들(변희재 주도)로 구성된 실크로드CEO포럼에서 따온 단어, 대한민국 20~30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선언함
후크업세대	한국일보 (2008.5.16.)	후크 업은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녀가 에로틱한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며, 청년들의 문란함을 지적
IP세대	동아일보 (2008.9.30.)	Interest&Passion(재미와 열정), Independent Producer(독립적 생산자), Innovative Pathfinder(혁신적 개척자), Intelligent Portfolio(똑똑한 재테크족), Intangible Power(만질 수 없는 파워), Interactive Participation(상호작용하는 참여), Instant Partnership(즉흥적 인간관계)
희망세대	동아일보 (2009.1.13.)	대학생 칼럼, '우리를 88만원 세대가 아닌 희망세대로 불러 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인턴세대	서울신문 (2009.1.16.)	2006년부터 독일에서 유행한 단어
C세대	중앙선데이 (2009.3.17.)	Crisis(위기)를 겪었지만, 사회의 소비를 리드하는 Consumer(소비자)
좌절의 세대	세계일보 (2009.5.14.)	논설위원이 언급함
파티세대	서울신문 (2009.6.8.)	청담동 클럽파티를 통해 청년들의 문란함을 지적
G세대	조선일보 (2010.2.16.)	Global의 약자로, 1988년 전후에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함
3C세대	매일경제 (2010.2.19.)	Confidence(자신감), Challenging mind(도전), Collaboration(협동)
V세대	동아일보 (2010.3.1.)	Valiant(용감), Various(다양), Vivid(생기)
V-V세대	한겨레 (2010.3.8.)	Vancouver-Victory
G20세대	문화일보 (2011.1.3.)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단어로,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가리킴
신안보세대	동아일보 (2011.2.9.)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여파로 6.25의 20대 이후 가장 강력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한 세대
P세대	중앙일보 (2011.3.24.)	젊은 보수, Pragmatic(실용적), Patriotism(애국심), Pleasant(유쾌한), Power&Peace(힘과 평화), Personality(개성), Pioneer(개척자)
S세대	매일경제 (2011.3.27.)	Survival(생존), Specification(스펙), Struggle(투쟁), Selfish(이기), Smart(영민), Specialty(실력), Stand-Up(홀로서는 힘)
삼포세대	경향신문 (2011.5.12.)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
V세대	서울신문 (2011.9.15.)	LA Times의 Generation Vexed(짜증난 세대) 인용
파란세대	국민일보 (2011.12.8.)	Frustrated(좌절), Aim(목표), Risktaking(위험감수), Amusement(재미), Network(네트워크)
축포세대	한국일보 (2012.7.28.)	저축포기 세대

자료 : 김선기(2014), 청년들, 청년세대담론을 해체하다, pp.2~3

언론을 통해 생산된 청년세대의 명칭들은 청년들을 청년실업 및 청년빈곤과 직결되는 경제적 불운세대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부유한 경제 상황에서 자라나 IT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글로벌 사회의 주역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행사들을 통해 청년들의 세대적 특성을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년세대 담론은 청년 당사자의 담론이나 자기진단이 아니다. 이러한 세대명칭의 부여는 주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에게 기대하는 덕목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세대를 규정하고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신조어들인 ‘삼포세대’를 비롯 ‘N포세대’,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수저계급론’, ‘헬조선’ 등과는 사뭇 다르다. 당사자 담론이라 할 이러한 신조어들이 담고 있는 청년세대의 자기인식은 지극히 비관적이며,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으로부터 출발하는 생애과정의 해체나 지연, 그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비관과 좌절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년세대 담론은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담론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담론들은 다른 청년층의 모습을 읽어내고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청년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을 주체화시키려고 한다. 세대 내 일부의 특성을 추출해서 그것이 청년 전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다수의 청년세대 담론은 특정 연령/출생코호트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표 2-2〉 ‘청년세대’를 둘러싼 담론 경합

	진보언론	보수언론
청년세대의 문제	탈정치화	미성숙성, 비이성적
청년세대의 특성	진보적 정치성향	보수적, 애국적 정치성향
청년세대의 임무	정치(투표) 참여	합리성(보수성)의 회복, 경제활동 참여
청년세대의 적	5060세대	386세대
대표적 세대담론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신안보세대, G세대, 글로벌P세대

자료: 김선기(2014),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p.33

한편 청년세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언론과 대중문화 그리고 하위문화 영역에서 특정한 세대의 활동이나 행동양식, 혹은 세대에 관련한 사회적인 사건이나 혹은 기억할 만한 사회문화적 이슈들이 부상할 경우에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함의를 조명하는 노력을 수행해 왔다(이기형, 2010).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 중에서 세대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청년실업과 빈곤의 원인 및 심각성을 밝히는 연구, 청년세대의 정치적 주체성과 대학운동 등의 정치 행동에 관한 연구, 문화연구의 흐름에서 이뤄진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에 대한 분석,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들에 대한 이해 시도, 결혼과 출산, 교육과 주거 등의 청년들의 삶에 대한 논의까지 청년세대 연구는 다양한 주제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세대연구들은 세대의 형성과 세대차이의 실재성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일단 세대를 구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생코호트 별로 살아온 시대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코호트간의 특성이나 가치관 등이 달라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세대라는 식의 논리로 대체되는 셈이다. 이러한 논의틀 내에서 세대형성 과정에 대한 많은 논의는 세대형성에 트라우마적 사건이 차지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간, 그리고 트라우마적 사건만으로 세대 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의 문제점은 임의적으로 집단을 구분해버림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 즉 세대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김선기, 2014: 220~222)

이러한 세대담론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청년의 위치는 ‘애매모호’하고, 청년세대는 때로 모순적인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다면적, 다중적 존재가 된다. 세대담론 안에서 청년들은 상호대조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데 오히려 당사자인 청년들은 범람하는 세대담론 안에서 정작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게 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 즉 집단의 구성원끼리 ‘공통의 의미지평’(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Eyerman and Turner, 1998; Giesen, 2004: 33-34). 하지만 세대라는 개념은 명확한 사회적 실재의 차원에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명확한 세대개념을 사용한다 하여도 그것은 그 세대변수에 속한 범위를 전부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에 대한 이해 및 세대담론의 구성은 청년세대의 실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법령 및 정책에서의 청년

#### 1) 청년 기준 연령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정책(Youth Guarantee)은 정책 대상을 2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9~34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연령을 대다수 국가들이 15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상한연령은 30대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2-3〉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하한-상한 연령

하한 연령		상한 연령	
구분	국가 수	구분	국가 수
0세부터	14	19세 이하	3
1~9세	7	20~24세	21
10~14세	48	25~29세	62
15~20세	111	30~34세	48
21세 이상	0	35~39세	43
		40세 이상	3

자료 : 김기현 외(2017), 〈청년 사회·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국내 법령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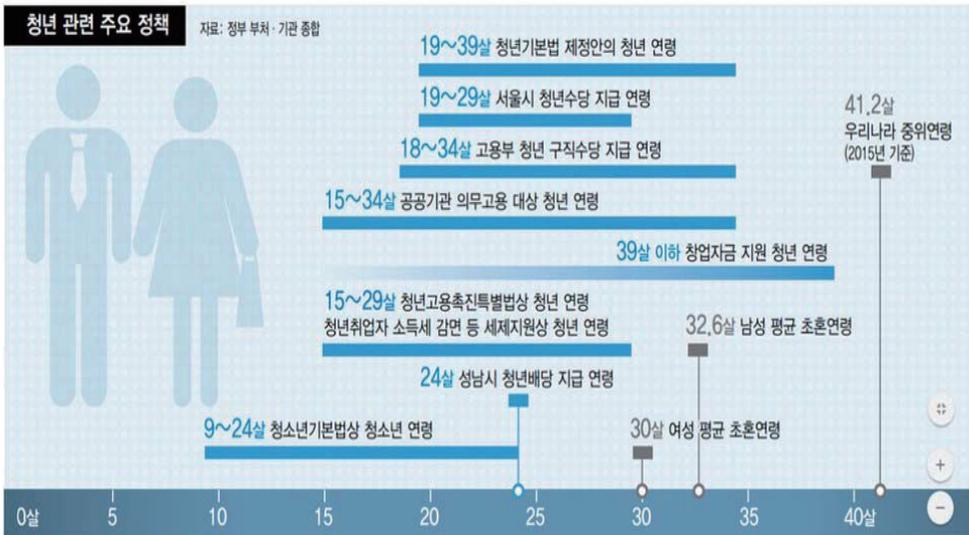
청년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정한 청년은 15세~29세를 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유스(youth) 통계의 기준을 15세에서 24세로 제시하지만, 이 법에서의 기준 연령이 29세로 높은 것은 취업·창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을 설정하려는 목적이므로 군 입대와 높은 대학 진학률 등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그림 2-1〉 청년 관련 주요 정책에서의 청년 연령 범위



자료 : 한겨레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

한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sup>3)</sup>에서는 청년을 2030세대 즉 만19세~39세로 규정하였다. 「민법」(법률 제13125호) 제4조에서 성년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회와 함께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던 청년기본법은 2년 여간 비슷한 내용으로 총 7개의 법안이 올라왔다. 2018년 5월에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범위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였다.

3)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양성, 청년과 소통 및 청년정책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 16일에 출범하였으며 2017년 6월 30일 폐지되었다.

〈표 2-4〉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비교

구분	신노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
목적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지원의 기본사항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선언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책임	기본이념	-	- 청년의 권리·책임	-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책임	-
청년정의	19~39세	19~34세	18~39세	18~34세	19~34세	19~39세	19~34세
기본계획	기재부장관, 매 5년	기재부장관, 매 5년	기재부장관+노동부장관, 매 3년	기재부장관, 매 5년	국무총리, 매 5년	국무총리, 매 5년	국무총리, 매 5년
시행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매년	기재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지역계획)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매년

자료 : 이투데이 '청년미래특위공청회... 7건 청년기본법안 비교해보니'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7515>

경기도의 경우, 청년 관련한 조례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2015. 8. 13 제정)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2017. 6. 13 제정),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2017. 6. 13 개정),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8. 1. 4 개정)가 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주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15~29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만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 청년은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범주를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였으나 2018년에 개정하면서 15세에서 39세로 연령기준을 확대했다.

〈그림 2-2〉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범위



자료 : 한겨레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

## 제2절 청년문화 담론

### 1. 서구의 청년문화론

#### 1) 세대와 세대문화

세대형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나이  
의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 또는 계기이다. 세대는 특정 연령집단으로 정치·경제·문화적 경험 속에서 ‘정서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Williams, 1977)를 만들어  
낸다. 홀브와치스(Halbwachs & Coser, 1992)는 세대경험을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인식한다. 집단기억의 제도화는 세대문화나 세대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세대는 집단기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례를 형성하고 이것이 사회적 응집력이 된다. 패션,  
언어사용, 상징공유와 같은 세대의 의례는 세대문화의 가치나 지향점을 반영하고, 자신의 신  
념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자 수단이다. 와이엇(Wyatt, 1993)은 세대의식이나 세대  
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 외상적(traumatic) 사건, 선도자의 중요성, 인구학적 변화, 이  
전과 이후 세대를 구별하는 특권적 간격(privileged interval), 세대가 문화를 만드는 특정한  
장소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외상적 사건은 전쟁이나 정치사회적 변동을 의미하면  
선도자는 기성체제나 지배문화에 저항하면서 세대의식을 이끄는 사람이다. 특권적 간격이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에서 특정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특정한 장소는 세대가 집단  
기억을 발현하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세대와 관련된 사회학적 논의들은 사회변동의 요인으로 세대에 주목하면서 특히 청년세대  
의식이나 세대문화 형성의 사회적 맥락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반면 미디어 문화연구 영역  
에서 세대문화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위문화(subculture)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청년  
문화’는 세대문화와 하위문화를 느슨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청년문화  
(youth culture)는 주로 20대 연령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된 정서와 경험, 그리  
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세대 단위마다 지니는 여러 특수성들의 총체로서 이해된다. 세대문  
화로서 청년문화는 또래 청년들 사이에 단일하고 동질적인 문화가 있음에 집중하는 반면 하  
위문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한다(김예란, 2016: 179~80).

하위문화에서는 계급, 세대, 인종과 같은 일정한 사회범주가 가지는 공통성 못지않게 그  
범주를 가로지르거나 혹은 뛰어넘는 문화적 취향과 정신을 중요시하면서 이러한 관통이나 추  
월은 기성의 규범에 대한 상징적 저항으로 강조된다. 헵디지(Hegdige, 1979)는 청년 세대  
하위문화가 인종, 계급, 부모문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재생산되며, 하위문화의 통합과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상징적 저항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하위문화에서는 계급, 인종, 세대, 성별 등의 사회구조적 맥락성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객관적 조건을 고유하고 독창적인 스타일(style)로 변주하는 표현적 창의성을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스타일은 하위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요소이자 저항의 상징적 형식으로 해석하여 세대문화가 표출되는 형식으로 이해한다. 한편 포스트 하위문화 연구들은 이러한 하위문화 연구를 비판하면서 일상생활과 비구조화된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젊은 세대 소비문화와 정체성, 지구적(global) 문화와 지역(local) 문화의 관계, 스타일의 점진적, 부분적, 혁신적 변화과정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주창윤, 2006: 76~77)

## 2) 서구 청년문화의 출현과 특성

서구에서 청년문화(youth culture)는 신세대(new generation) 개념과 함께 등장했다. 이 신세대는 제2차 대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현대자본주의의 고속성장 속에서 새로운 소비양식과 생활양식의 수혜자가 된다. 부모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진보적인 사고방식과 개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 신세대는 자신들의 소비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유의 청년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한다.(이영란·김민, 2018)

제2차 대전 이후 서구 신세대가 주도하던 청년문화는 기존사회에 대한 대항과 일탈, 대안적 성격을 모두 보여주었다. 이러한 청년문화는 저항정신을 토대로 하여 반규범적, 반사회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나 분출구를 찾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은 음악에서부터 예술, 도덕과 종교에서 취미와 오락의 영역까지 생활세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러한 신세대 문화는 국가별 사회·문화·역사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갔고, 그 수용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청년하위문화는 노동자 계급의 긍지와 정체성을 내세우고 중상계층의 규범과 도덕을 부정하는 일종의 대항문화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면, 독일(당시 서독)의 청년문화는 정신적인 사회규범과 도덕을 강조하는 경직된 사회분위기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반시민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적·국가적 차이가 있음에도 유럽의 사회변동과 함께 했던 청년문화는 각 사회의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 세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권위주의나 위계질서 등과 같은 기존의 완고한 사회질서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신세대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냈음을 볼 수 있다.

〈표 2-5〉 서구 청년 하위문화 계보

	시기	계급	문화형식	지향성	동시대 비교
비트	전후~ 1950년대	중산층 엘리트 문화예술가	재즈와 로큰롤, 약물, 다다이즘·아방가르드, 알코올	동양주의, 탈문명주의	힙스타재즈광, 흑인 음악의 변용
모드	1950년대~ 60년대 초	반숙련 노동자	복고풍, 맵시나는 정장풍, 세심한 액세서리	노동자 계급 댄디즘	테디 보이-도시의 불량배, 유색인차별주의
히피	1960년대	중산층 엘리트 대학생	포크 음악, 동양풍 의상, 약물, 프리 섹스	반전, 반핵, 평화, 자연친화주의	로커적-도시 지향적, 폭주족-여성 차별적
펑크	1970년대	룸펜 프롤레타리아	펑크록-피어싱, 메탈 재킷, 루렉스, 레인코트	도시 하위문화	스킨헤드-룸펜 노동자, 청년 계급, 라스타-흑인 하위문화
글램	1970년대	중산층	글램록-원색 의상, 화려한 염색, 반짝이는 액세서리	양성애적 낭만주의	펑크-양성애 혐오, 여성주의적 편향에 대한 거부
여피	1980년대~ 90년대 초	도시 중산층 엘리트	뉴 웨이브, 하우스, 레이브	소비주의, 일상적 파티와 사교	이피, 덩크-개인주의
보보스	1990년대 중반	도시 상류층 엘리트	고급 사교 파티, 명품 의상과 액세서리	테크노크라시, 글로벌 마인드	사이버펑크, 다중-자율주의 주체들

자료 : 이동연(2005), 문화부족의 사회. p.127

## 2. 한국의 청년문화론

### 1) 청년문화 담론의 등장과 1970-80년대의 청년문화

‘청년문화’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반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청년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던 일련의 문화현상을 지칭한다(김창남, 2008: 145-148). 당시 청년세대의 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일정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며 그 시기 문화를 규정짓는데 일조하였다.

1970년대는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집권 아래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개발독재의 장기집권으로 진행하면서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고 사회적 갈등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등장한 청년문화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정치적 변화와 갈등의 맥락 안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청년 대학생들은 시대에 대해 고민하고 저항의식을 표출하면서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의 대학문화를 형성해 갔다. 그러나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로 상징되듯이 이 시기 대학문화는 이념적이거나 투쟁적이기 보다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과 서구의 1960년대 청년문화가 공유하는 예술장르, 패션, 소비행태, 정치의식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 온 근대화는 경제적으로는 공업화를 이뤄가는 과정이었으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서구화를 지향했다. 근대화와 함께 매스미디어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서구 대중문화와 접촉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는 유신체제가 내세우는 엄숙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중사회로 전환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상업화된 대중소비문화와 같등하던 시기였다.(주창윤, 2006: 78-84)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청년은 일본 문화의 영향아래 있던 기성세대와 감성이나 정서, 미적 취향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 청년문화가 보이는 낭만적인 엘리트 의식과 감성적인 자유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저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시기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과 의식, 취향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에서 형성된 것이다. 청년문화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두고 식민지세대의 문화와 서구 문화의 세례를 받은 전후세대의 부상하는 문화가 격렬하게 벌이는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의 청년문화는 ‘차이의 정치학’(김창남, 2008)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로 대변되는 ‘1970년대 청년문화’를 1970년대 청년문화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다.(김창남, 2008; 김예란, 2016) 이 ‘청년문화’는 대학생인 청년집단의 문화일 뿐이며 당대의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대학 진학률은 10%에 미치지 못한 숫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농촌의 청년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노동자 및 도시 빈민 집단을 형성했다. 저학력, 저임금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은 대학생 청년집단들과는 다른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청년문화’는 세대(문화) 특수성의 형태를 띠면서 대중음악, 문화, 영화나 스타일에서 세대(문화) 일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부상적 문화로 평가된다(주창윤, 2006). 그러면서 1970년대 청년문화는 분리과정을 겪게 된다. 청년문화의 주요 소비자는 일반 대학생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소비계층인 대학생들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청년문화에서 권력에 의해 배제되지 않은 문화형식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중소비문화로 확장되었다. 반면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거나 금지된 청년문화는 청년문화‘운동’으로 반체제와 저항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이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저항문화가 구성되어 문화운동이 제도화 되는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1970년대 청년문화의 저항적 정체성은 대중문화 공간에서 표출하지 못함에 따라 민중문화 담론을 통해 표출되었다. 권력의 억압에 의해 청년문화 담론이 주저앉으면서 저항문화의 주체로서 민중문화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중문화 담론은 유신체제의 파시스트적 통치

의 연장이었던 1980년대 제5공화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띠면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는 유신체제의 파시스트적 군부통치의 연장이었다. 유신체제와 5공화국 사이 과도기의 민주화의 열망을 폭력을 통해 억압하면서 국가적 폭력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개발독재의 근대화와 경제주의는 계속해서 지배담론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 증가하면서 지배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198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문화는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이었으며 1970년대의 대안문화적 생산이 대중화·조직화·체계화된 특징을 나타냈다.

1980년대 대항문화는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국가적 폭력성으로 인해 상업적 대중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권 밖에서 형성되었다. 대항문화 담론은 지식인의 실천 중심이었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민중, 나아가 노동자 계급이라는 명확한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1980년대 민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주체가 청년 대학생집단이었다. 대학은 민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였다. 1980년대 청년 대학생들에게 민중문화는 1970년대의 청년문화와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통로이자 기호였다. 선배들의 청년문화가 자유주의적인 반면 이들의 문화는 보다 이념적이고 투쟁적인 진보주의였다 (김창남, 2008).

## 2) 1990년대 이후 청년문화

1990년대와 함께 이념적 지평이 변화하고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념 대립에 기반하고 있던 1980년대 진보주의 문화담론의 위상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념의 해체는 전망의 부재로 이어졌고 이는 청년문화의 핵심이었던 대학문화의 정체성 상실로 연결되었다. 진보주의 문화담론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시장이었던 대학문화가 힘을 잃게 되면서 문화시장의 헤게모니는 급속도로 신세대 청소년층으로 넘어갔다.

냉전체제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억압적 군사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던 1980년대의 대학문화는 자연스럽게 이념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었다. 반면 신보수·신자유주의로의 변화, 탈냉전, 정보화의 변화 속에 있는 1990년대 이후 대학은 사회변화의 전환기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상업주의와 시장논리에 잠식당하면서 마치 취업준비장이나 소비문화의 전시장으로 변해갔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신세대’에 속하는데 이들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영상에 친숙한 세대이고 소비적이며 감각적인 성향을 지녔다.(주은우, 1994) 1990년대 이러한 대학의 특성은 대학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10대를 주력으로 하는 신세대

문화가 대중문화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1990년대의 대학문화는 주류 대중문화에 포섭되었다.(김창남, 2006)

이념의 해체와 민주화로 인해 정치과 권력의 힘이 약화되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강화되었다. 신세대 청소년층이 문화시장의 주력이 됨에 따라 이들의 소비문화가 대중문화를 주도하였고 대학생층을 비롯한 청년층은 신세대 문화의 주변부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인디’ 문화를 발생시켰다. 인디는 ‘독립’, ‘자율’, ‘자치’ 등을 뜻하는 인디펜던스(independence)의 줄임말로 인디 문화는 자본이나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인디 문화는 주류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의 표출이며 문화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는 자본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인디 문화는 대안적, 저항적, 진보적인 면을 지니게 된다.

인디 문화는 ‘홍대 앞 인디 씬(scene)’이라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서울 ‘홍대 앞’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상업적인 주류 대중문화와의 구별짓기가 가능한 로컬 음악씬을 형성했다. 홍대 앞 인디 씬은 주류 음반 기획사에 반하는 소규모 인디 음반사, 주류 미디어에 반하는 지역의 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홍대 앞 인디 씬은 거대 자본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생산을 도모하고, 기존의 유통 구조와는 다른 독자적인 배급망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주류 대중문화에 대한 전복적인 문화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정엽, 2010: 79-91).

## 제3절 타 지역 사례

### 1. 부산

부산의 자생적 청년문화 움직임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디 록 밴드, 스트리트 댄스, 그래피티, 지역 축제 기획 등 다양한 장르의 부산 지역 청년 예술가와 문화 기획자들은 당대 주류문화에 반하는 대항적 ‘독립문화’, ‘대안문화’, ‘대항문화’의 색깔을 지닌 하위문화활동을 활발히 생성해내었다. 여기서 ‘독립’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문화예술창작과 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부산대 앞을 중심으로 많은 클럽이 형성되어 1990년대 중반 약 10여 개의 클럽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부산대학교 지하철 역 주변을 중심으로 인근 3개역 거리에는 그래피티 작가들의 작품들로 가득했다. 이 그래피티 거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해외 그래피티 작가들의 작품까지 집약된 예술적 공간이었다. 스트리트 댄서들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남포동 거리와 용두산에서 활동하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들이 응축되어 거리 축제라는 형식으로 표출되었다. 2003년 결성된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는 펑크 락 밴드, 그래피티 작가, 스트리트 댄서, 수공예 작가, 화이트 큐브를 벗어난 작가 등 다양한 청년 예술가를 부산대 앞 거리무대에 결집시켰다.

부산 지역에서 자생적인 청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된 원인에 대해 물자가 유입되는 해양문화 영향으로 외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꼽는다(송교성, 2014). 부산에서 80년대에 성장기를 지낸 세대는 불법복제 레코드판을 통해 외국 음악을 접하기도 하고 당시 수입이 금지되어 있던 일본의 패션 잡지나 만화책을 접할 수 있었다. 또, 팽안리와 같이 일본 NHK 방송 전파가 잡히는 지역에서는 NHK 방송을 시청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 내에서 활발히 유통되지 않았던 해외 문화 콘텐츠들이 부산의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등에서 유통된 것이다. 이러한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중앙집중적인 한국의 대중문화 코드와는 다른 감각과 감수성을 표출하는 부산 청년문화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적 한계로 인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활동 무대를 서울이나 해외로 옮겨갔다. 부산의 인디 록 밴드들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 혹은 ‘인디’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인 서울의 홍대 앞 클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부산 지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 홍대 앞을 택한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이 무대를 옮기자 지역의 클럽들 역시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래피티 작품들로 장관을 이뤘던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아래 하천변 거리는 2010년 부산시와 금천구청이 하천천 정비를 명목으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다양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결집되어 폭발적인 문화예술적 에너지를 표출하던 부산대 앞 거리축제는 부산대에 내 들어선 백화점의 민원 항의로 중단되었다.

최근에 들어 부산의 청년문화는 과거와 같은 문화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활동의 영역은 확대되어 다원적인 경향을 띤다. 인문학 공간, 생활문화 공간, 도시재생 사업, 지역 주민과의 문화 기획 사업 등 영역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다원적 공간을 만들어 문화기획 활동, 지역 출판활동, 연구 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부산의 청년문화활동을 경험한 소수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은 여전히 활동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문화 활동가를 연결하여 새로운 청년문화 활동을 촉발시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부산의 청년문화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예술 창작행위로 표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부산 청년문화는 단지 특정 세대가 하는 문화활동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역적 고유성을 지닌 문화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즉, 부산 청년문화활동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대의 청년세대가 특정한 지향성을 드러내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고유한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청년문화활동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생성하고 진흥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생산-소비의 생태계가 구축될 만큼의 상업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역 청년문화활동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근거이다. 부산시는 2013년 ‘부산시 청년문화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4개 목표, 20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기본 틀로 하여 2016년에 사업 실행 주체인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이 본격적으로 일련의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청년문화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활동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냥 공모만 해서 팀 모집하고 돈 내보는 것이 끝이에요. 지역의 재생산 기반으로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촘촘한 지원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단순 공모지원사업하고 끝이에요. 10년 동안 진입도 할 수 있게 하고, 문화적인 큰 실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공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년 정도를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지역 단위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중략). 연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의 지원책이건 공간의 지원책이건 연속적인 세팅을 잘 하는 거는 당연히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청년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름만 청년문화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건물 짓는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도 비슷하죠. 청년문화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강사들 면면을 보면 다른 인문학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청년문화의 특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기획된 정책이 없어요.”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문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것도 시에 넘어가니까 전부 다 자기의 성과 잡기에 급급한 거예요.”

“청년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청년문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열심히 얘기해서 정책 방향을 만들어내고, 디테일한 것들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 실행 주체가 반영하는 것이 없어요. 현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애초에 위원회를 왜 만들었지 싶은 거죠. 실제로 청년 주체를 참여시켜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에서 나타났었던 특유의 ‘인디 문화’적 정서와 정치의식은 2018년 현재 부산 청년의 정체성과는 다를 것이다. 그 세대 나름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지역 문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의 참여, 행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정책의 효과, 즉 문화적 파급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산에는 청년문화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문화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놓았지만 청년 문화활동 주체들이 생산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문화공간들은 불안정하게 운영되다 폐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몇 년 활동하던 지역의 청년 문화기획 인력들은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다.

## 2. 천안

천안에는 최근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비중 있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결부되어 지역 청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청년들의 지역에서의 문화 활동이 돌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당사자 스스로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생적인 지역 청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에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천안역 앞 원도심 지역 상권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는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청사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기대감에 임대료가 먼저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천안역 앞 원도심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천안역 앞 원도심에는 4년 동안 25팀의 청년이 원도심에 창업을 하였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가지고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활동 중에 있으며, 지역 청년아티스트과의 연대를 통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낙후된 원도심 내 빈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 활성화하고자하는 시도와 개인적 관심과 꿈을 이루기 위한 시도들이 접합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신진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들고자 천안 원도심 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은 천안에 소재한 미술대학이 많지만 천안 미대생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고 대부분 서울에서 졸업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예술가들에게 전시대관료를 받지 않으며, 판매 금액도 작가들이 정하고 낮은 수수료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전시 기회를 얻은 청년 작가들 뿐 아니라 현대미술 장르가 낯설었던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 3.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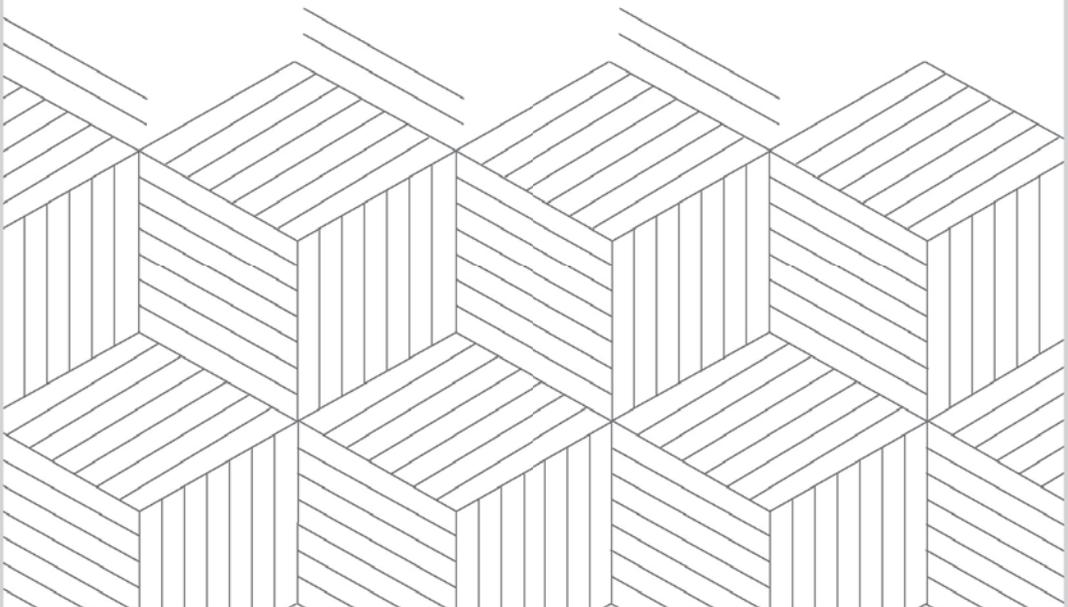
시흥 지역은 지역별 단절이 심하여 인천, 부천, 안산 등 시흥의 인근 지역으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 흡수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청년이 연대하여 자생적인 청년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큰 지역이다. 2014년부터 시흥 청년 기본조례를 위한 준비 모임을 매개로 해 지역 청년들이 모임을 갖고 시흥 지역 전반에 청년 문제를 환기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험을 얻게 된다. 청년 기본조례를 위해 모였던 지역 청년들은 이 과정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 또한, 청년 주체가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지고 시흥 청년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흥에서 청년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지역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지역의 시화 공단과 반월 공단에서 일하는 청년과 같이 청년 정책이 가장 필요한 청년 집단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 집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 청년 집단을 대변하고자 활동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역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3장 수원 청년문화의 생산자

- 제1절 수원 청년문화의 발생적 맥락
- 제2절 청년문화 생산자 조사 개요
- 제3절 수원 청년문화 생산자들의 특성과 인식





## 제3장 수원 청년문화의 생산자

### 제1절 수원 청년문화의 발생적 맥락<sup>4)</sup>

#### 1. 수원 청년과 청년문화의 역사

1970년대 수원의 청년문화에 영향을 끼친 집단은 서울 (혹은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유학을 간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유학을 떠난 사람도 있다. 70년 중반이후 수원에도 대학이 생겨나면서 타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수원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수원의 청년문화, 나아가 수원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서울로 유학 간 수원 청년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으로 5월 초~중순부터 6월 6일 현충일까지 이어지는 딸기 철에는 농사일에 집중하다가 농사일 뜸해지는 시기에는 공장에도 나가고, 혹은 공장에서 일거리를 받아와서 집에서 작업하고 납품하는 노동청년들의 삶 또한 70년대 수원청년의 한 모습이였다.

이 시기 수원 청년들에게 중요한 공간은 종교기관이었다. 여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곤 했는데 ‘동원의 시대, 통제된 일상’<sup>5)</sup>을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며 새로운 경험을 주었던 교회활동은 여러 청년(혹은 예비 청년)들에게 깊게 기억되고 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당이나 사찰(포교당)에서의 활동 또한 다르지 않았다. 70년대 수원청년들의 생활 중 많은 시간은 종교공간에서 보내졌으며, 그 곳에서의 경험이 청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청년들은 종교기관의 공간을 통해 모여 통제된 일상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는 수원지역 거주 대학생이 증가하고 수원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이 시기 수원지역의 대학생들은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야학활동, 청년-여성 단체, 교육-문화단체 창립과 운영 등은 이들 대학생들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80년대 초반 수원에는 수원출신 대학생 중심의 씨클들이 꽤나 많았다. YJC, 창우회, 썰,

4) 이 절은 2018년 3월 23일에 개최된 제13회 수원학 포럼 ‘수원 청년문화의 역사와 과제’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5) 수원시사 19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중 제3부 목차는 ‘동원의 시대’ 통제된 일상’아래 새마을바람, 동원의 물결, 캠페인의 시대, 통제 그리고 강요된 일상 등 3장으로 구성되었다.

캔, 아르케 등등의 모임들이 있었고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다른 한편 화홍야학, 제일야학 등 수원출신 대학생들과 수원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야학활동도 활발하였다.

80년대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화였다. 수원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의 많은 분량은 청년들의 몫이었다.<sup>6)</sup> 기독교청년운동을 비롯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문화운동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은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과정은 청년들의 손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80년대 전후로 수원지역으로 여러 대학들이 옮겨오거나(한신대, 성균관대, 경기대 등)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아주대, 수원대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인들의 변화이다.<sup>7)</sup> 70년대 말부터 대학생활을 통해 수원에 정착하거나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원출신보다는 수원에서 대학생활을 하였던 청년들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후 생겨났던 여러 단체들의 구성인자들을 보면 반 수 이상이 수원에서 대학생활을 하였던 수원 지역 이외 청년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현재 수원 청년과 문화활동

2008년 즈음부터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기획 활동이 시작되었다. 행궁길발전위원회라는 주민조직과 수원의제 21 추진협의회(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근호 사무국장님이 마을만들기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시기였다. 행궁동에 한테우물길이라는 길을 중심으로 조직된 행궁길발전위원회는 인근 건물 중에 비어있는 100평 규모의 지하공간에 청년작가들이 입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원의 첫 번째 작가 레지던시 공간이었다. ‘한테우물창작촌’이라고 불렀던 이 레지던시의 청년작가들과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복잡한 삼각관계에서 ‘문화기획자’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합류하여 지역에서의 문화기획 활동을 시작했다.

민선5기가 시작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수원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아졌다. 그 중의 하나가 ‘수원시민창안대회’였다. 매주 청년들과 함께 지역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회의를 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6) 수원시사 제8권 제3부 참고

7) 1974년과 1985년 사이에 대학수가 늘었으며 이후 학교수는 변화는 없지만 학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수원은 아니지만 수원 인근에 있는 한신대(오산시), 경희대(용인시), 수원대, 수원과학대, 장안대(화성시) 등을 고려하면 수원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수는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로 문화활동을 다니며 지역에서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싶은 의지로 모인 청년들이었다. 이때 나왔던 아이디어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왜 우리는 재미있는 활동을 찾아 서울로 가야만 하는가!”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점을 찾자는 내용이었다. '청년동지'라는 팀명을 짓고 '청년재능벼룩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대회를 통해 제안하게 되었다. '청년동지' 팀은 수원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내 청년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자 조직되었다. 주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활동을 했다. '청년동지'의 첫 프로젝트인 '재능벼룩시장'은 지역 주민들 간의 재능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콘텐츠화시켜 벼룩시장을 열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프로젝트였다. 수원의 청년들과 함께해 온 지역 문화기획 활동은 지역을 넘어 수많은 미디어에 소개 되었고 각종 포럼 및 토론회에 초대되어 '지역혁신사례' 및 '청년혁신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삶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었다.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며 함께 일했던 기획자들이 떠나갔고 결국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들이 정리되기도 했다. 10년 전 지역에서 문화기획자의 꿈을 펼치던 청년 중 현재까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 지속성이라는 잣대가 문화기획을 통해 실험적인 활동을 기획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있다.

## 제2절 청년문화 생산자 조사 개요

### 1. 청년문화 개념 및 범주 설정

문화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문화는 특정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 가치이자 동시에 의미를 발생시키는 실천이기도 하다. 기존의 주류 문화와는 구별되는 문화적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청년문화를 청년주체 문화정치로 간주하기도 한다(고길섭, 1999) 청년문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청년세대는 가장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변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가 가지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문화적 헤게모니과정 즉 문화정치를 통해 문화시장을 전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청년문화는 주류, 자본, 기성세대 등의 개념과 대비되는 하위문화적 특성을 가진 문화로 파악했다. 1960년대 서구사회의 문화적 혁명은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에 반하여 대항문화적 특성을 지닌 문화로 발전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문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청년문화 또한 당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며 주류, 기성세대, 자본 등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더 나아가 저항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청년문화의 저항적 특성은 기존의 예술 장르나 창작과 구별되는 창조적인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권력이나 자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가치와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항문화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창조적 가치에 대한 욕구는 협업적 구조를 형성해 자신들의 개별 장르를 넘어서 타 장르와의 융합하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주류적인 기존의 문화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소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문화는 특정 시기나 세대, 특정 장르로 국한할 수 없다. 기존 체제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시대정신이 담긴 문화,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실천적인 문화적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문화, 기성 사회의 규범, 가치관, 행동 양식을 넘어서 새롭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대안적 성격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문화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제2차 대전 이후 서구 신세대가 주도하던 청년문화는 기존사회에 대한 대항과 일탈, 대안적 성격으로 규정된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문화는 1970년대에는 기성세대와의 문화적 구별짓기로서, 1980년대에는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조직운동과는 다른 형태의 민중문화운동 기저의 한 경향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자본에 의한 지배적 주류 대중문화에 대해 저항하는 인디

라는 형태로 청년문화의 개념이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청년문화에 접근해야 한다.

현 시기의 청년문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전 세대와 같이 사회운동과 연관된 저항적 성격의 문화라고도, 자본에서 독립하거나 배타적인 문화라고도 하기 어렵다. 요즘 청년세대의 문화활동은 종종 공적자금에 의한 프로젝트로 표현되거나 시장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 행위나 활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전복적 가치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대안적 형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청년문화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현 시대의 청년문화는 그 범주와 포함하는 영역에 대해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포괄적이다.

청년문화활동의 범주에는 독립·인디·서브컬처·비주류·대안·다원·언더그라운드·대항문화 등으로 호칭하거나 기존의 주류적 문화예술활동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문화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 활동들은 자기만족을 위한 개인적 수준의 활동에서부터 도시재생과 같은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까지 다양하다. 대안공간이나 커뮤니티 아트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활동뿐만 아니라 클럽이나 카페 같이 매우 상업성이 짙은 공간운영도 문화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 청년문화활동 분류

창작과 개입의 정도에 따른 분류			수익성과 공공성에 따른 분류		
개인적 수준	개인적+사회적	사회적 수준	수익성(상업적)	복합적	공공성
자기만족/자기개발	살롱문화/커뮤니티 사회적기업/스타트업	공동체와 지역	클럽/밴드	복합공간+ 사회적기업	대안공간/커뮤니티 대안적 실천

자료 : 오재환(2014). 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부산발전연구원. p13.

## 2. 조사 범주 및 대상

이 연구는 특정 세대의 생활양식 혹은 문화소비행태로서의 청년문화가 아니라 하위문화적 관점에서의 청년문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원 청년문화의 지역문화씬(local scene)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보통 씬(scene)은 주로 대중음악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씬이란 음악을 생산하고 수용하고 유통하는 일련의 음악적 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어떤 지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음악적 실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음악씬은 음악이 생산되는 유연하고 느슨한 종류의 공간, 즉 일종의 음악 행위를 위한 맥락이며, 일상적으로는 음악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대면적 맥락을 뜻한다. 김민규(2001)는 해리스와 스트로우의 논의를 통해 씬을 문화로 확장하여 인디문화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디문화씬이라는 말은 인디문화가 생산되고, 수용되고, 유통되는 행위와 관련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인디문화씬에 대한 내적 동학을 생산, 수용, 매개(유통)의 영역 간의 상호적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씬은 “지역성(locality)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대중음악씬’이라는 표현과 함께 ‘시애틀씬’, ‘맨체스터씬’, ‘홍대씬’ 등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문화의 생산이나 매개/유통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에서 생산은 창작, 매개/유통은 기획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생산자는 소비자 또는 수용자에 대비하여 생산과 매개/유통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단지 창작에 의해서만 아니라 매개활동과의 연계 하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뷰는 수원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청년, 즉 장르나 분야에 상관없이 문화기획자나 활동가 그리고 예술가로 호칭<sup>8)</sup>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대상자들은 연령적으로 대략 2-30대 연령층의 사람들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제도에서 하한연령은 대체로 만19세로 설정되나 상한연령의 경우 만34세로 제한하기도 하고 만39세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에는 만34세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전 청년위원회에서는 만39세까지 포함했다. 이 연구는 문화활동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자 연령 범위를 느슨하게 설정하여 만39세까지 포함하였다.

대상자들의 문화활동의 범위는 전통적 예술장르 중심의 관행적인 활동보다는 실험적이거나 탈장르적 활동으로 관성화되어가는 기성 예술계에 대한 대안적 활동, 독립이나 인디적인 성격의 활동,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운동과 연계한 문화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 내용적으로는 연주를 포함한 창작, 전시, 공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간 운영,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등이다. 여기서 공간은 비영리 공간뿐 아니라 클럽, 카페, 서점 등 상업적 성격이 있는 공간도 해당한다. 다만 차를 팔거나 책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단순히 상업적 행위만이 아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문화적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활동 형태는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 활동이나 단체 혹은 조직활동을

8) 대상자들은 하나의 호칭으로 아우를 수 없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칭할 호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를 아우를 때에는 생산자나 활동가라는 호칭을, 창작과 구별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획자라는 호칭을 혼용할 것이다.

모두 포함하는데 단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같은 기업도 포함한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일차적으로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의 공모지원사업의 신청자나 청년 네트워크 등의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 중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자나 사업자, 경기상상캠퍼스 청년문화창작소 입주자들 중 수원 기반의 작가나 단체를 추천받아 섭외하였다. 일부는 인터뷰 과정에서 대상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섭외를 하기도 했다. 수원 기반이라는 것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창작의 주요 소재로 하는 경우, 수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수원과 관련있는 프로젝트나 작품, 행사 등이 주된 활동인 경우, 수원에 소재한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작성하고 숙지한 후 수행되었다. 질문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화를 주었으며 응답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다.

조사 내용으로는 활동가 개인과 단체의 연혁 및 활동현황, 청년 관련 활동과 이와 관련하여 청년에 주목하는 이유 및 청년문화에 대한 생각, 수원에 자리하게 된 이유, 수원의 특성 - 서울 등 타 지역과의 비교 활동과 수원이라는 지역의 의미, '수원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등 수원에서의 활동 관련 사항, 향후 지향점과 계획, 장애 요인,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 등 수원 지역에서 청년문화 생성의 조건 등이다.

〈표 3-2〉 인터뷰 참여자

	성별	나이	수원거주	분야	공간적 기반	활동지역
김○○	여	29	9세 이후	독립서점, 심리상담	서점	매탄동
김○○	여	37	수원 출신	시각예술작가, 문화기획		서둔동
김○○	남	38	고1 이후	뮤지션, 문화기획, 문화공간 운영	문화공간	율전동
김○○	남	38	수원 출신	가수,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매장	행궁동
박○○	남	32	출생, 대학 이후	뮤지션 발굴, 인디음반 제작, 매니지먼트/공연	녹음실, 공연장	원천동 (아주대 앞)
박○○ <sup>9)</sup>	남	35	수원 출신	여행 벤처기업, 문화공간 조성	카페, 게스트하우스	행궁동
박○○	남	36	일하면서	전통연희 등 공연 창작 및 기획, 여행·세미나 기획 등		행궁동
박○○	남	38	수원 출신	환경 관련 활동,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회적 기업	카페	수원역 등
천○○ <sup>10)</sup>	남	37	수원 출신	디자인 스튜디오 (시각디자인, 브랜딩, 출판 등)	디자인 숍, 독립서점	행궁동
최○○	여	35	일하면서	문화기획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전시, 세미나 등)		서둔동

9) 인터뷰 이후 운영하고 있던 공간운영과 여행사업에서 새로운 비영리조직을 결성하였다.

10) 인터뷰 이후 서점운영을 그만두고 펍 운영을 시작하였다.

## 제3절 수원 청년문화 생산자들의 특성과 인식

### 1. 수원에 정착하기

인터뷰 대상자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모두 30대에 해당한다. 20대 기획자나 동가를 섭외하고자 했으나 소개나 추천이 거의 없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생애과정에서 20대는 상대적으로 직업이나 활동이 불안정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초중반은 학업 과정에 있게 되고 중후반은 졸업을 했더라도 직업 트레이닝 과정이나 구직과정에 있게 된다. 설령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업을 갖더라도 임시직이거나 확고한 직업적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군대 생활로 인해 사회진출이 늦어지므로 이러한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 문화기획자나 활동가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고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되려면 30대 그것도 중반 이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스물아홉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사회적기업가 학교 다닐 때가 29살이었어요. 학교를 제가 좀 늦게 나왔어요.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28살에 졸업해서 1년 정도를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두고, 사회적기업가 학교가 열렸다고 모집 공고를 보고서 퇴사하고 그리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온 거죠.”(박○○, 38)*

인터뷰 대상자 대다수가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수원과 연관을 맺고 있다. ‘수원 출신’ 즉 수원에서 출생해서 성장을 한 경우는 물론이거나 수원에서 출생을 한 후 타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다시 복귀했거나 반대로 타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수원으로 이사와서 초·중고 시절을 수원에서 성장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수원 출신자의 경우 대학 졸업 이후 사회진출은 수원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원에 정착하고 본격적인 자신의 활동을 해나가기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험을 쌓기도 하고 일과 관련된 학습이나 트레이닝을 받은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회사를 3개 다녔어요. 사회생활을 4년 정도 했는데 이직을 좀 많이 한 편이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회사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회사라고 요즘 말로 UX디자인 회사라고 해요... (중략)...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나중에는 교육팀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만들고, 교육업체 같은 거 나가고 그런 업무도 했었고요. 잠깐 축제 만드는 문화*

기획하는 회사에 3개월 정도 다녔다가, 세 번째 회사는 아예 교육 회사를 다녔어요.”(김○○, 29)

“저는 서울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독립예술축제가 있어요. 5년 전부터 기획팀으로 일하고 현재도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축제 조직위에서.”(박○○, 32)

“분당으로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수원에서 활동이 좀 멀어졌죠. 분당에서 다닌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라 출퇴근 개념이 있었지만 거기서 숙식을 거의 다 하다시피 거의 3년을 그렇게 했었구요. 그러다가 처음엔 디자인 스튜디오 친구랑 분리해서 신사동에서 시작을 했어요.”(천○○, 37)

일과 관련되어 수원에 정착하는 경우 수원시나 경기도 혹은 산하 기관들에게서 지원을 받거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선정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수원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 정착하는 경우는 수원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어지는데 이러한 일은 대체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프로젝트이다.

“12년도에 여기로 온 거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유망작가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게 됐어요.”(박○○, 36)

“수원주말환경놀이터라는 조그만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화서역 지하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수원으로 내려오게 됐죠...(중략).. 그리고 수원시민창안대회 수상하고 수원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1회 수상하고 본격적으로 법인화하고 여기까지 왔어요.”(박○○, 38)

“경기문화재단이 수원에 있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몇 번 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된 건 상상캠퍼스였던 것 같아요.”(최○○, 35)

한편으로 수원이 생활의 기반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기도 한다. 생활의 기반이 정착과 연결되는 것은 주로 대학 이후 즉 성인이 되어서의 생활이다. 단순히 생활의 물리적인 지역 기반이 수원이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취미나 기타 다른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연관성을 유지해 간다는 측면이 크다.

“제가 기숙사에 중간에 살긴 했었지만, 아무튼 집은 항상 수원이었고 회사도 통근을 했거든요. (중략) 결혼하면서 남편이 삼성 다녀서 매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김○○, 29)

“형이 아주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필자: 형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다가 여기 오게 됐고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연습실이나 사무실이 침수되고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거의 정리하고 내려온 게 수원이었어요. 수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박○○, 36)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대 초반 때 밴드 연습실을 여기 말고 그 근처에 지하실을 썼었거든요. 그 때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20대 초반 때 여기서 연습실 썼던 경험이 있어서 그 쪽을 다시 한 번 알아보러 왔다가...(중략).. 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친구들이, 연극하거나 음악 하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중략).. 경기도문화의전당이라고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서 모이게 된 친구들이 주축이구요...(중략)... 제가 커서 만들었던 추억들이나 친구들이 여기 있어서. 대학생활을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20대 보냈기 때문에.”(박○○, 32)

“세상 사는 방법이 꼭 취직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다가 사회적 경제라든지, 문화 관련된 씬을 알게 되고 졸업 1학기 남겨두고 나서 창업을 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볼까, 문화 관광 관련된, 관광으로 먹고 살만한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되는데 수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박○○,35)

한편 주목할 만한 현상은 부모나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받아 이를 활용하여 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조부의 낡은 주택을 받아 이를 개조하여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다. 이 장안동 지역은 주로 오래된 낡은 주택들로 이루어진 구도심이며 지대(地代)가 매우 낮은 탓에 이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은 대체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았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응답자는 자신의 활동을 위해 조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응답자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업하여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이게 저 말고도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살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행궁동에 의외로... 되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자산 가지가... 뭐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400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팔거나 아니면 방치해놓는 수준이었거든요. 저희가 이 장안동, 신평동에서 처음으로 공간을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공간에 계속 저희 또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애착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저희는 용기를 준 거예요. 그냥 일단 해라, 시작해라.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잘 돼요...(중략)... 제가 아는 팀만 저희까지 합쳐서 5팀입니다...(중략)...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핫해졌다 너무 좋다. 그리고 나도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박○○, 35)

이에 대해 주변의 상인들은 소위 ‘금수저’라는 식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자신들이 수원에 애정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방치해 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버려진 동네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동네가 활성화되어 급작스런 지가 상승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쫓겨나지 않음으로 해서 동네를 지킬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 2.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의 줄타기

인터뷰 대상자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의미의 예술 장르나 한가지 영역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20대 여성은 심리상담을 겸하고 있으며,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 브랜딩이나 디자인 업무를 하는 30대 남성은 독립서점을 운영한다.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은 2집 싱글음반까지 발표한 인디 뮤지션인 반면 공연장이자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30대 기획자는 인디음반 제작자이다. 비슷한 문화공간이자 카페를 운영하는 두 30대 남성은 각각 여행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이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분야들을 망라하게 되는 것은 우선 현재의 문화기획이 전통적인 예술 장르 구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시도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상업적 영역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필요로 하면서 문화예술과의 접목이 빈번해 지면서 문화의 경계가 확장되어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이 문화기획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 이력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대상자의 대다수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이력이 현재의 활동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인 기획사에서 음악을 2~3년 정도 개인 사설에서 음악 공부를 했고요...(중략)..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학원 강사도 하기도 하면서...(중략).. 음악 보컬 강사도 하고 그렇게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하면서...(중략).. 밴드도 해보고 해보니,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악 연습실을 만들게 된 거예요...(중략)..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데뷔도 혼자서, 해서 싱글 2집까지 혼자 총 프로듀싱을 해서...(중략)... 꿈들이 실현화되는 게 모여 있는 플랫폼이 지금 다투클럽이라는 꿈꾸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업,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이 원했을 때 그 사람의 꿈을 실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김○○, 38)

“서양화과를 나와서... 그림을 전공한 건데 이후에 나와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예술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라고 부르는 활동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창작활동을 조금 병행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기획이나 프로젝트 작업이 맞아서 개인 작업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중략)... 장애인의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업도 5~6년간 해왔고 이후에 관련한 비영리단체 활동을 4년 정도 했었고 그런 기간들이 쌓여서 현재는 다양한 주제로 문화기획활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중략)... 지금 현재 장애예술 관련한 연구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때도 있고요.”(최○○, 35)

이러한 삶의 궤적은 이들이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을 자신들의 활동에 녹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이런 치열함은 기성 예술가들과 달리 공적인 지원이나 후원에서 벗어나 자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립성의 추구는 이들의 실천에서 비영리적 문화활동과 상업적 비즈니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문화공간은 대개 상업적 장소의 카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서점은 상업공간이지만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문화실천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을 포함한 청년문화가 고급 예술보다는 대중문화의 성격이 강하고 대중문화는 시장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는 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싫어서 지원을 받기보다 수익모델을 만들어 자립하고자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최대한 지원받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아요. 지원 안 받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박○○, 36)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거에는 자산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가 가장 처음에 들어가요...(중략)... 문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작업을 안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돈을

별고, 우리가 오히려 그냥 우리 돈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한 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박○○, 35)

“카페를 볼 거냐 청년활력공간으로 볼거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기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안에서 그 두 가지가 자석의 n극과 s극이 결합되어있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되어있고요...(중략)... 지역사회에 플랫폼을 만드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든 소셜 플랫폼이든 만드는 회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중략)... 기금은 따오죠.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 행정 처리 때문이에요 진자 학을 떼고서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박○○, 38)

“지금 보면 그동안도 수많은 예산으로 수많은 청년정책들과 문화정책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17년 동안 이렇게 고달프게 해왔는데 한 번도 그 혜택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김○○, 38)

### 3. 홀로 서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

인터뷰 응답자들에게 청년은 이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대이며 청년문화는 시대와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시대적 특성 중 하나는 시각적인 것이 반응하고 그것에 익숙하기에 SNS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적 측면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지, 복지적인 걸로 전 체계를 다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 세대를 저는 생산가능이고 인도화적인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고...”(박○○, 35)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공감 되는 거라고. 저도 100% 공감할 순 없어요. 20대랑 또 30대랑 다르듯이.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0이 될 거고. 근데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봐요.(천○○, 37)

“시각적인 걸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저는 점점 더 세대가 갈수록. 인스타에서...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카페하거나 지금 기획하는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인스타 구현 능력이 되게 중요한 스킬 중 하나예요.”(박○○, 35)

그렇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자본주의에 포섭당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 양극화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저기 명인 선생님들, 문화재 선생님들은 왜 항상 많은 레슨비를 받고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실까 싶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명인 선생님들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박〇〇, 36)

“지금과 같은 구조가 특치 구조라고 얘길 하면은 우리가 뭐 10년 일해도 20년 일해도 자산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박〇〇, 35)

“지방 분권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방 안에서 또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방 기득권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청년하곤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계급담론이나, 저희한테 아무 상관없는 건데 지금 청년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중략)... 그냥 다시 분권이 되지만 그 안에서의 정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포섭일 뿐이다.”(박〇〇, 35)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대 간의 갈등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조금 더 들기도 해요. 이 정책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는 생각 같기도 하고.”(박〇〇, 36)

그래서 이들은 청년들이 보이는 매우 개인적이고 보수적인 면모를 지적한다. 심지어 자본주의에 잠식당한 청년들은 지역의 임대료를 올리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오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근데 청년들도 기성세대 못지않게 저는 보수적인 것 같아서. 자기네들한테 뭐랄까 피해나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고, 도움돼지 않는 건 관심이 전혀 없고.”(박〇〇, 36)

“저기 월세를 올리는 거는 건물주들이 아니에요. 저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이에요. 저기에 돈을 올린다고 하니까. 왜 올리냐. 팔려고 내놓은 데를 사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 팔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얼마 줄 테니까 파시오 이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집은 그제 고정가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얼마 받았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지. 그제 어쩔

게 보면 신사동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시초가 되는 거고.”(천〇〇, 37)

한편 청년들의 이런 사고는 자립성의 강조로 이어진다. 청년들은 일방적인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청년들은 공짜로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스타일의 청년들도 그런 거 받고 싶지 않거든요. 으라차도요 초반에는 무료로 많이 줬어요. 지금도 청년공간 하고 있긴 하지만 공짜로 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은요 아예 이해 자체를 못 해요. 내가 왜 공짜로 받아야 되지? 그러면 그걸 수혜해준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근데 기성세대는 뭐가 되냐면 자기네들이 없었을 때 이걸 그냥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박〇〇, 38)

#### 4.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

인터뷰 응답자들은 수원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기존의 다른 정책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 청년이라는 특성에 맞게 디자인되고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년에 대해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틀이 있으며 이것에 맞춰야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한다.

“수원에선 아직 딱 성공했다고 싶은 청년정책은 전 없는 것 같아요.”(박〇〇, 36)

우리가 그랬던, 상상했던 모습보다는 기존의 마을 만들기라든지 기존의 중간 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고요...(중략)... 청년 관련 돼서 명확하게 지원을 할 게 정해져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게 좀 불명확하다고 봐요. 그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소통 방식과, 조금 더 쓰면 혁신 방식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대응이 처음 설계부터 있진 않았거든요.”(박〇〇, 35)

“공모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시에서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통과돼야 되잖아요. 또 다른 시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잘하는 분들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김〇〇, 38)

“뭔가 상시로 상담하거나 되게 생활과 밀접하고 정서를 공감하는 장치는 없잖아요? 청년 정책에서. 그런 건 없고 창업을 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해내거나 너네 역량을 강화시켜줄게. 근데 그건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목적이 하나 밖에 없는 정책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최〇〇, 35)

이들은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내어놓았다. 청년 공간을 민간을 지원하거나 네트워크로 운영하기 보다 수원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실적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 없이 청년공간이 운영되다 보니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꾸 뭔가 만들어내서 성과를 (내려고 한다)..(중략)... 그건 민간에서 같이 만들어야 되거나 민간이 만든 걸 지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공간네트워크도 일부는 직영으로도 하고 사회적기업이랑 결합도 하고 아니면 민간에 있는 공간을 지원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중략)... 수원에 청년공간으로서 네트워크할 수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활동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청바지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박〇〇, 38)

“청년들은 청년지원센터에 안 보이거든요. 그 때 많이 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지로 모여야 된다고 해서 어떤 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원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형태여야 되는 거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랑 연관이 돼있어야 되고...(중략)...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점이 많은, 공간 자체도. 거기 있는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그러면서 무슨 청년의 미래를 얘기하는지..”(천〇〇, 37)

청년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대상인 청년에게 맞아야 한다. 청년들의 취향과 정서, 욕구 등에 맞을 때 청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하고 있는데 관이 뭘 만들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요 사실.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 어필이 안 돼요.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중략)... 청년이라는 세대는 비교를 해서 선택하는 세대다. 청년정책도 비교한다. 시흥이 좋으면 시흥 갈

수 있고 서울이 좋으면 서울, 수원 그 모든 걸 비교해서 내가 거주지 옮기면 되는 건데 그걸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우리한테만 있을 거라는 생각 참 오판이다...(중략).. 그 대신 아 여기가 더 좋으니 여기 와서 좀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고향이니, 저처럼, 여기서 뭔가 삶을 펼쳐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선택지를 줘야지. 뭔가 우리 여기 텃밭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만 뭘 해 이러면 지금 트렌드랑 맞지도 않고요...(중략).. 청년공간은 클 필요가 없어요. 작고 다양해야 돼요...(중략).. 청바지나 이런 것, 이미 구축된 걸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진짜로 만약에 문어발식으로 더 확장하겠다, 마치 지역마다 동사무소 놓듯이. 전 그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재미는 재미대로 없어지고. 청년들은 거기 안 가요. 차라리 스타벅스 가지...(중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대되는, 청년공간들을 잘 지원해주고, 지원의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지원해주고, 다양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청년정책관이나 청년지원센터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박〇〇, 38)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돈을 벌려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 지원은 유지하고. 왜냐면 아티스트들 지원이 없으면 그걸 중단해버리고 다른 생업을 위해서만, 전반적인 문화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 하고 실제로 성공사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어떤 청년 사업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저는 수원의 백종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중략).. 수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중심 철학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은, 그런 어떤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걸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게 없이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백지의 상태인 거죠.”(천〇〇, 37)

## 5. 수원과 정서적으로 묶이기

성인이 되어 수원에 정착한 응답자의 경우 수원의 폐쇄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sup>11)</sup> 수원 출신인 응답자도 수원 사람 특히 기성세대가 보여 주는 폐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너무 폐쇄적이에요, 수원...(중략).. 아까 말한 수원의 폐쇄성은 되게 싫은데, 지역의 환경은 되게 좋아요.”(박〇〇, 36)

11) 수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 출신 초중고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수원 사람 혹은 수원 출신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별짓기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수원의 약간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하던데, 수원이 유독 그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박○○, 38)

“저는 사실 수원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수원 사람 이런 건 없거든요.”(박○○, 35)

그러나 이들이 수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원 출신이든 아니든 특별한 애정이나 감정이 있지는 않지만 살다보니 익숙하고 편한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응답자는 수원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원에 애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익숙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김○○, 29)

“수원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수원이 지금은 제일 편해진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그래서 떠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중략)...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고, 내가 살아갈 동네이니깐.”(김○○, 38)

“수원에 대한 애착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수원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착이 좀 깊기도 하고.”(박○○, 35)

어떤 이유로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든지 간에 이들의 활동에는 일종의 지역에 대한 사명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수원’에 대한 애정이기도 하고 서울에 대한 ‘지역’인으로서의 반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대생들도 이왕이면 대학교 생활을 을전동 문화의 불모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곤 PC방 당구장 맥주집 밖에 없는 곳이 아니라, 좀 무언가 좋은 콘텐츠가 있는 동네로 만들어주고 싶다, 금곡동 이제 내 아이가 최소 10년 15년 살 곳인데, 그 곳에 이왕이면 내가 느꼈던 그런 주민 중심의 삶이 아닌, 행정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좀 힘을 내서 아이와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콘텐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원시에 대한 제 바램은 나의 18년의 애증의 수원이 아니라 우리 수원 되게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김○○, 38)

“(수원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수원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더 쉽게 다가오고 지역 좋다. 타 지역 청년까지 모여서 만든다, 사실은 그 그림이 제일 좋잖아요”(천〇〇, 37)

“저는 어릴 때 대학교 가기 전까지 연극이나 음악을 되게 못 접했어요...(중략)... 이런 거 나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지역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원에서 베이스로 하게 된 거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아져야 돼, 그렇게 멀리는 안 돼. 그런 반발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박〇〇, 32)

## 6. 수원의 문화만들기

인터뷰 응답자들 눈에 비친 수원은 나름의 매력을 가진 도시이며 좋은 문화적 자원을 가진 도시이다.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매력은 화성에 의해 생겨나지만 한편으로 느린 변화 그로 인한 옛스러움과 정겨움이기도 하다. 이 옛스러움은 또한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움’으로 다가가기도 한다.

“여기 동네 같은 느낌이 많아요...(중략)... 오래된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중략)... 그런 게 있고 가운데 화성이 있다든지 장안문 이런 게 있는게 요즘도 다니면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문화재가 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느낌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어떤 동네나 지역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최〇〇, 35)

“수원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켈러를 낼 수 있는 게 행궁이라는, 화성이라는 곳이 있으니까.”(천〇〇, 37)

“유명한 프랑스 작가. 비엔날레 참여작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작업들 해야 되는데. 가능한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화적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추어리즘도 존재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 수원은 어떤 아마추어리즘이 제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중략)... 하향평준화 된 상태에서 계속 아마추어리즘으로 가니까.”(천〇〇, 37)

“서울 게 훨씬 세련됐어요. 그리고 훨씬 나아가 있고 재미는 있어요...(중략)... 근데 수원 은. 처음에 와서 또 친구들 작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의 속도나 트렌디함은 아닌 건데, 되게 인간적인 그게 있어요.”(최〇〇, 35)

수원이 고유의 문화적 면모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화적 아우라가 강한 서울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보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서울로 쉽게 옮겨간다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탓에 서울 주변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인력과 자원을 서울에 흡수당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내에서의 문화활동은 위축되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서울이랑 너무 가깝기도 하고.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밴드나 음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박〇〇, 32)

“차라리 진짜 아까 말씀하신 순천, 광주, 이런 데는 차라리 되는데, 수원은 애매한 것 같아요. 서울이 너무 가깝다보니까, 사람들이 어, 그냥 놀러갈 거면 서울 가지(하고). 약간 아예 제대로 각 잡고려고 가고 하는 데로는, 수원에서 아예 찾아보려는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김〇〇, 29)

“다른 지역이요 수원 말고 똑같아요. 시흥도 그렇고, 청년 교류를 해보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지역에 안 남고. 그거는 수원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죠. 그거는 또 서울이라는, 쉽게 말하면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강하고 기회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박〇〇, 38)

이들은 사실상 지역 간의 문화적 위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문화적으로 서울은 가장 앞서 있으며 수원과 다른 도시들은 서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화적 양상이 실제로는 특별한 것이 없을 지라도 서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다른 도시들에게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수원청년들이 서울로 자꾸 가요. 이태원이든 연남동이든 홍대든 가서 찍어 와요. SNS에 올리려고. 나는 이런 문화활동을 서울에서 하는 멋진 사람이야...(중략)... 용인은 약간 수원을 흉내 내고, 수원은 서울을 흉내 내고. 그게 티가 나니까 웃기다는 거예요.”(천〇〇, 37)

“똑같은 규모의 공간에 컨셉이어도 그게 수원에 어디에 생긴다 그러면 절대 사람들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도 막상 가면 옆에 그냥 전자상가 사이에 있는 건데..”(최○○, 35)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낙오자로 간주하거나 낙오자들만이 수원에 남는다는 인식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청년세대가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달라진 매체 환경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인해 물리적 거리가 주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동네에서 우리가 뭐 서울로 진출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 또래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중략)... 오히려 제 윗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러셨을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박○○, 35)

“홍대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홍대를 목표로 하진 않고 그런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오히려 유명해진다거나 아니면 뮤지션리그라는 곳이 있어서. 그런 데가 대체를 해버리니까...(중략)... 요샌 지역재단에서 거리 버스킹 이런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 활동하는 것들, 수원시나 수원도서관, 다른 도서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작은 행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박○○, 32)

인터뷰 응답자들은 많은 것을 서울이 흡수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지 서울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순환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얼마든지 서울과 수원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기에 서울에서 얻은 경험을 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은 문화계 전체의 질적 상승을 위해서도 유용하다.

“수원청년들이 수원에서 꼭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넘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개인적 비전을 갖거나 아니면 저처럼 소셜미션을 갖게 됐을 때는 이왕이면 수원에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램이 있어요. 경험은 서울에서 해도 좋고 다른 데서 해도 좋은데, 결국엔 경험이 쌓여야지 뭔가 자기가 자존감도 생기고 뭔가

해보겠다는 사회적 자본들을 결합시켜서 뭔가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는 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도전을 수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박〇〇, 38)

“사실 꼭 수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음악이라는, 음악 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씬들이 형성되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되게 의미 있고. 지역마다 그런 씬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지역의 그런데서 잘한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순환들이 돌아갈 때 음악계 자체도 굉장히 활발할 수 있는 건데...”(박〇〇, 32)

이들이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문화는 거창하지는 않다. 굳이 서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화 씬은 어느 특출난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문화적 경험들이 쌓이고 지속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올만큼 매력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서울의 흥내를 내면 연남동을 가지 행궁동을 왜 오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력 있는 공간들, 가기도 하잖아요. 제주나 이런 데들. 탈서울한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긴 하고. 어떤 대안으로 느끼는 거예요. 수도도 그런 어떤 대안문화로서의 서울에서도 올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싶어요...(중략)...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0년 된 빵집, 50년 된 라면집 이런 것들. 그런데 수원에는 그런 데가 많지 않죠.”(천〇〇, 37)

“한 팀이 유명해져서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무대들 생겼을 때, 뒤에서 꾸준히 오는 사람들, 30명 50명씩 계속 오는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그러면 지속성이 될 것 같아요. 큰 돈 대단한 돈이 아니더라도 그 문화가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싶죠. 유명한 한 팀 만드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 재밌었어, 계속 가고 싶어 이 경험을 계속 만드는 게 목표긴 한데.”(박〇〇,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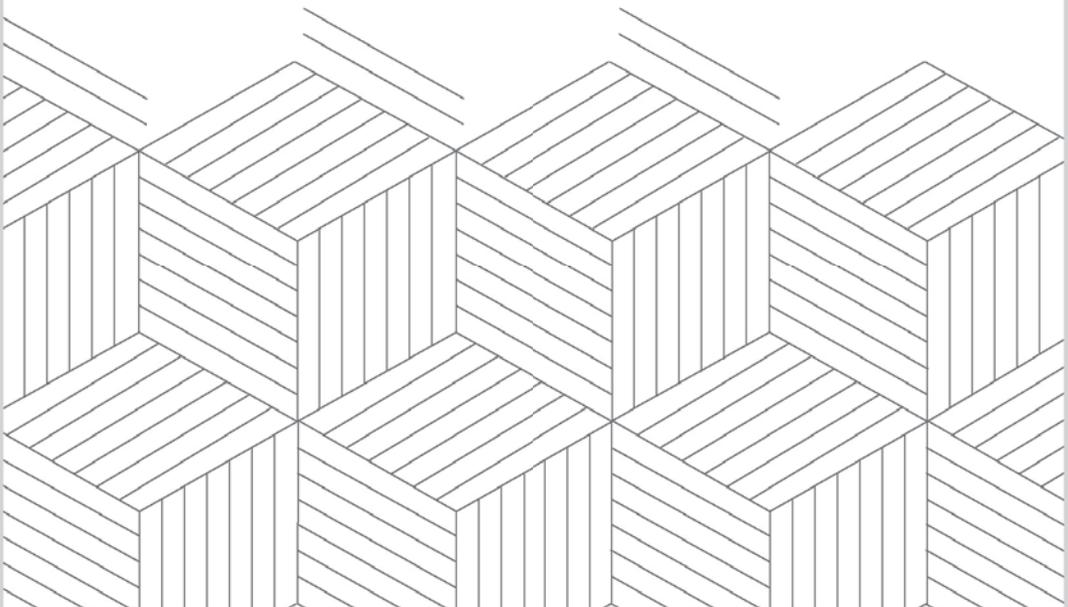
지역내에서 상품이나 콘텐츠 향유나 소비가 일어날 때 생산의 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문화생태계의 순환이 가능해진다. 문화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문화생태계의 선순환의 유지이다. 청년 기획자들 모두 지속성을 말하는데 자신들의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만들어지려면 지역 내에서 우선 일정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박〇〇, 32)

“그게 지역에서 소비되고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공연도 그렇고, 기획사업도 그렇고.”(박〇〇, 36)

#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제언





## 제4장 결론

###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인터뷰 대상자인 청년문화활동가 혹은 기획자는 대다수가 30대에 해당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생애과정에서 20대는 상대적으로 직업이나 활동이 불안정한 특성상 문화기획자나 활동가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고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되려면 30대 그것도 중반 이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다수가 출생이나 성장과정에서 수원과 연관을 맺고 있다. 수원 출신자의 경우 대학 졸업 이후 사회진출은 수원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험을 쌓기도 하고 일과 관련된 학습이나 트레이닝을 받은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수원이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원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특히 일과 관련되어 수원에 정착하는 경우 수원시나 경기도 혹은 산하 기관들에게서 지원을 받거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선정된 것이 주된 계기이다.

한편 특기할 현상은 부모나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받아 이를 활용하여 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례이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조부의 낡은 주택을 받아 이를 개조하여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응답자 외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업하여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수원에 애정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가 상승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쫓겨나지 않음으로 해서 동네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의미의 예술 장르나 한 가지 영역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독립서점과 심리상담, 디자인 스튜디오와 독립서점, 음악 활동과 문화공간 운영, 문화공간 운영과 음반제작, 카페 운영과 사회적기업 경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문화기획이 전통적인 예술 장르 구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시도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청년 문화생산자들은 기성 지역예술가들과 달리 공적인 지원이나 후원에서 벗어나 자립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립성의 추구는 이들의 실천에서 비영리적 문화활동과 상업

적 비즈니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는 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싫어서 공적 지원을 기대하기 보다 수익모델을 가진 비즈니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모색한다.

수원의 청년문화의 생산자들은 공적 지원과 자율자립성의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완전한 자립이 가능할 때 온전한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자립을 하기에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생산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화소비와 유통이 일어나 문화생태계의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당부분 여전히 공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문화활동가들의 자립의 문제는 문화활동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공공성과 상업성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일찌감치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에 익숙하고 상업적인 대중문화를 경험한 청년세대들은 영리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활동가라기 보다 오히려 사업가로서 인식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청년문화 공간은 외형적으로는 상업공간인 카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지 소비공간으로서가 아닌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비록 상업적인 공간일지라도 이들은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도시에서 그 흐름을 거부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문화 예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든지 간에 이들의 활동에는 일종의 지역에 대한 사명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수원'에 대한 애정이기도 하고 서울에 대한 '지역'인으로서의 반발이기도 하다. 이들 눈에 비친 수원은 나름의 매력을 가진 도시이며 좋은 문화적 자원을 가진 도시이다.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매력은 화성이 가져다 주는 한편, 서울보다 느린 변화로 인한 옛스러움과 정겨움이다. 그렇지만 이 옛스러움은 때로는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움'이나 '구림'으로 다가가기도 한다.

이들이 수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다양하다. 수원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사람부터 출신이든 아니든 살다보니 익숙하고 편한 곳이 되었고 특별한 애정이나 감정이 있지는 않다고 하는 응답자까지 있다. 이들은 수원의 폐쇄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심지어 수원 출신인 응답자마저 수원 사람 특히 기성세대가 보여 주는 폐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지역 간의 문화적 위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문화적으로 서울은 가장 앞서 있으며 수원과 다른 도시들은 서울을 쫓아가고 있다. 수원이 고유의 문화적 면모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서울을 쫓아가는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 보니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인력과 자원을 서울에 흡수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낙오자이거나 혹은 낙오자들만이 수원에 남는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청년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으로 오히려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원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얻은 경험을 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서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어느 특출난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문화적 경험들이 쌓이고 지속됨으로써 지역문화권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 출신인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지역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수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활동이 지역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지자체의 공적 지원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던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자신들의 활동의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정체성은 수원의 기성세대 혹은 선배 예술인들에게서 보이는 폐쇄성에 갇혀있지 않다.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더 이상 구별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울 중심의 주류 문화를 배격하지 않으면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난다. 기성의 지역예술인들은 촌스러움 혹은 수준낮음을 지역의 특수성으로 포장해왔다. 그러나 청년예술가들은 이러한 특색을 ‘구림’으로 인정하고 극복하려 한다. 서울의 ‘힙’함이나 앞서나감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경험을 쌓고 트레이닝을 받지만 이에 대한 열등감을 갖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활동을 수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과 수원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다. 자신 활동의 근거는 지역에 두지만 지역예술가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청년은 이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대이며 청년문화는 시대와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기성세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자본주의에 포섭당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이는 매우 개인적이고 보수적인 면모를 지적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일방적인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수원의 청년정책이 기존의 다른 정책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 청년이라는 특성에 맞게 디자인되고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

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대상인 청년에게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향과 정서, 욕구 등에 맞을 때 청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화꾼으로서의 수원의 청년문화를 논하기는 선부른 감이 있다. 아직은 수원의 청년문화꾼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젊은 인력들이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과 미학적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도시 활력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지역의 청년문화는 자생력과 창조적 활동력을 가진 청년문화 생산자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한 협력적 기반을 조성한다면 고유한 지역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문화는 기존의 문화적 관성을 넘어서려는 신선한 발상과 실행이 결합된 문화예술활동에서부터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실천과 연대까지 그 폭이 넓다. 청년문화 생산자들은 지역에 대한 깊은 천착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의 청년문화는 여전히 자본의 문제, 생존의 문제들과 같은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 있다.

서울이나 여타 타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문화꾼으로 작동하기에는 그 깊이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씬의 핵심적인 요소인 생산-매개-소비의 재생산 구조가 성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씬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실은 불확실해 보인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는 청년문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오랜 동안 청년은 정책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 생애과정의 청년에 주목하게 시작했고 경제위기 및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그러다보니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빈곤 해소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정책에 관점에서 보아도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sup>12)</sup>

한편 청년문화는 독립, 인디, 저항 등으로 표현되는 그 특성상 그동안 정책과는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기 보다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서 정책과 관계맺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최근의 문화정책의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청년문화에 문화정책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청년문화가 역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더군다나 지역문화의 차

12) 신진예술가 지원 같은 정도가 대체로 청년에 해당하는 정책인 셈이다.

원에서 청년문화의 문화적 실천들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지역의 문화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청년문화에 대한 정책은 문화다양성의 확대, 문화권의 보장 등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청년문화 정책은 청년세대의 특성이나 취향 등이 고려되고 당사자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의사결정에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청년문화 인력들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토론이나 기획 등을 활성화하여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추진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소비만이 아닌 다양한 참여와 활동, 기회와 도전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청년문화 정책은 청년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더 정책의 유연함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문화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정책 대상 즉 청년문화의 자생성과 자발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청년문화 주체와 그 주체들의 활동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따라와야 할 것이다. 정책적 조급함이 오히려 정책이 의도하는 목적을 그르쳤던 사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정책은 청년문화가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시켜나가기 위한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 고길섭(1999), 청년문화, 혹은 소수문화론적 연구에 대하여, 문화과학 20, pp.145-172
- 김민규(2001), 한국 인디문화(indie culture)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기(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pp.207-248
- 김선기(2014), 청년들, 청년세대담론을 해체하다,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 김선기(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pp.5-68
- 김예란(2016), 탈주와 모방 - 1970년대 청년문화의 감각과 정동 실천, 언론가 사회 24(3), pp.178-224
- 김은정(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pp.83-129
- 김창남(2004), 청년문화의 역사와 과제, 문화과학 37, pp.173-185
- 김창남(2008), 1970년대 한국 청년문화의 문화적 정체성 - 통기타음악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2, pp.144-165
- 남춘호 외(1명)(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성인기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92), pp.91-128
- 남춘호(2014), 압축근대와 생애과정의 구조 변동, 지역사회연구 2292), pp.1-28
- 박영정(2015),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방희경 외(1명)(2016),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 (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 '위기론'과 '희망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국언론학고 59(2), pp.37-61
- 송교성(2012), 지역문화씬(Local Scene)의 가능성 - 부산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259-276
- 안선영 외(3명)(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개발원
- 오재환(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우석훈 외(1명)(2007), 88만원세대, 서울: 레디앙
- 은기수 외(2명)(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취약위기에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형(2007), 홍대앞 “인디음악문화”에 대한 문화연구적인 분석 - “홍대썸”과 클럽문화를 자기기술기와 참여관찰로 접근하기, 언론과 사회 15(1), pp.41-85
- 이기훈(2014),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돌베개
- 이동연(2001), 문화운동의 대안모색을 위한 인식적 지도그리기, 경제와 사회 50, pp.130-167
- 이동연(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37, pp.135-153
- 이동연(2004), 공간의 역설과 진화 : 홍대에서 배우기, 문화과학 39, pp.180-193
- 이동연(2005), 문화부족의 사회 : 히피에서 폐인까지, 서울: 책세상
-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과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8(2), pp.67-106
- 이정엽(2010), 홍대 앞 인디음악 씬의 문화경제, 대중음악 6, pp.68-96
- 장현정(2012), 부산 청년문화, 저력 있고 자생적 움직임 활발, 부산발전포럼 2012(133), pp.5-17
- 전상진 외(1명)(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pp.261-285
- 전상진(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1), pp.127-150
- 주은우(1994),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21, pp.70-91
- 주창윤(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pp.73-105
- 최성민(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화이론연구 50, pp.227-248
- 허혜경 외(1인)(2015), 청년심리와 교육, 학지사
- Hebdige, D. (1979)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이동연 역(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 Sternberg, Robert J. and Wendy M. Williams, Educational psychology, 김정섭 외(5명) 역, (2010) 교육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박만준 역, (2008) 마르크스 주의와 문학,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 <영문 자료>

- Arnett, Jeffrey, (2006) Emerging Adulthood :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Rev. ed.), Oxford University Press
- Cote, J. E. and A. L. Allahar, (1996) Generation on hold: Coming of ag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Halbwache, Maurice and Lewis A. Coser,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hite, Jonathan, (2013) Thinking gener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2), pp.216-247
- Wyatt, D. (1993) Out of the Sixties: Storytelling and the Vietnam gen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reators of Youth Culture in Suwon

Like other culture discourses, youth culture discourses have been discussed mainly on the basis of cultural activities in Seoul.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discourse of local culture is dealt with as the dimension of regional development which implies the necessity, various meanings of local culture are excluded.

Youth culture was often represented by new cultural initiatives, experiments, alternative values and attitudes. In other words, historically, youth culture has been a major driving force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identity. This is why, when one tries to promote local culture, on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reator of youth culture as one of the central subjects. This study seeks youth culture as an alternative culture, independent culture, and subculture in Suwon area.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ocal culture as a hybrid and stereoscopic cultural construct by dealing with the cultural phenomena that seek to change through resistance and alternatives and/or various non-mainstream subcultures in the region.

The main research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ose belonging to the production or mediation / distribution area of youth culture. Specifically, young people who belong to the 2-30s age group and who perform cultural activities in Suwon, that is, young people who can be called arts professionals, activists or artists. The categories of cultural activities include alternative activities by experimental or de-genre work, independent or indigenous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linked with social movements to resist existing values or to spread new values.

The interviewees are mainly 30s, and most of them are related to Suwon in birth and growth. When they settled in Suwon related to their work, the main

reason is that they carried out projects supported by Suwon and Gyeonggi-do or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Their activities encompass cover a wide range of fields that can not be limited to traditional artistic genres.

These activities have a sense of mission to the region. This sentiment is both a love for Suwon and a reaction to Seoul as a local people. They acknowledge that there is in fact a cultural hierarchy between regions. Cities around Seoul are close to the physical distance from Seoul, so people and resources are being absorbed in Seoul. However, those who work in Suwon are not regarded as underdogs.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younger generation, they have a strategy of seeking opportunities because they do not live in Seoul. It is possible to work across Seoul and Suwon and utilize the experience gained from Seoul in Suwon.

Youth cultural activists in Suwon are crossing between public support and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In order for local cultural producers to become independent, there must be enough cultural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to circulate in the region, but it is not. Therefore, they are still largely dependent on public support. The self-reliance of these cultural activists dims the boundaries between for - profit and nonprofit, public and commercial.

They recognize that their activities are meaningful as a local culture and can not rule out relations with the region. They want to create a unique culture without rejecting the mainstream culture of Seoul. They acknowledge the sophistication of Seoul but do not feel inferior to Seoul. They are trained and experienced in Seoul, and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is local, but not as a local artist, but as a member of a national cultural network.

There is a rudimentary sense to discuss the youth culture of Suwon as a local cultural scene. Suwon's youth culture scene is not yet formed and it is not easy to talk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However, it is clear that a variety of young people act as a source of city vitality and cultural capacity by pursuing cultural diversity and aesthetic value based on locality.

Keyword : Youth, Young generation, Youth culture, Subculture, Local scene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인문도시 정책 중장기계획 연구(2019~2022)」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생활문화예술 동오회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2017, 수원시정연구원)



